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366-01

Happiness for All, with Global KOICA

21세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과 동향 : 제1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과 2014년 멕시코 고위급 회의를 중심으로

2014. 5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21세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과 동향 : 제1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과 2014년 멕시코 고위급 회의를 중심으로

2014. 5

ODA연구팀
임소진

저자

임 소 진

現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상임연구원 (Email: sjlim@koica.go.kr)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개발정책학 박사

▸ 주요 정책연구 실적

- 모두를 위한 품위있는 삶 :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 사무총장 보고서.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12호. 한국국제협력단. 2013.
- 공여국의 개도국 정부 역량개발 지원체제. 한국국제협력단. 2013.
-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10호. 한국국제협력단. 2013.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012년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 결과와 함의.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8호. 한국국제협력단. 2013.
- 한국 ODA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평가지표 이행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5호. 한국국제협력단. 2012.
-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4호. 한국국제협력단. 2012.
-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 연구.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0호. 한국국제협력단. 2012.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과와 한국 ODA의 과제.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3호. 한국국제협력단. 2011.

▸ 주요 학술연구 실적

- Forging 'Soft' Accountability in Unlikely Settings: The Prospects of Mutual Accountability in South-South Cooperation. KOICA Working Paper No. 2014-1. 2014. (공저)
- 동유럽과 동아시아 공여국의 원조정책 비교에 대한 소고. 동유럽발칸연구, 37: 339-369. 2013.
- Donor Behavior Change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weden and China in Tanzania.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31(2): 209-232. 2013.
- Post-2015 글로벌 목표 이행체제 논의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한국의 개발협력. 2013. 2호, pp. 53-69. 한국수출입은행. 2013
- Can There Be An East Asian Donor Model?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국제개발협력지 2013. 4호, pp. 120-137. 2013. 한국국제협력단.

- Implementation of the OECD DAC Principles in South Korea: Implications for Future DAC Member States. Working Paper No. 9. Manchester: Centre for Organisations in Development. 2013.
- OECD DAC 동료검토의 이해 및 의의. 국제개발협력지 2013. 1호, pp. 11-27. 한국국제협력단. 2013.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한국 ODA의 전략적 이행방안. 국제개발협력지 2012. 3호, pp. 22-40. 한국국제협력단. 2012.
- Addressing Gender Inequality in the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A Conceptual Framework and Theoretical Guide. Addressing Inequalities Global Thematic Consultation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by UNICEF & UN Women. 2012.
-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협력효과성으로. 국제개발협력지 2012. 2호, pp. 11-30. 한국국제협력단. 2012.
- 부산총회의 결과와 KOICA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함의. 국제개발협력지 2011. 4호, pp. 105-119. 한국국제협력단. 2011.
- Western Inspired Paris Declaration: What Works and What Doesn't. Working Paper No. 4. Manchester: Centre for Organisations in Development. 2011.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1. OECD DAC 중심의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 ····· 1

2.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이행 ····· 8
   2.1.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의 이해 ····· 8
   2.2. 제1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 결과 ····· 14
   2.3.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 및 해결과제 ····· 21

3. 2014년 멕시코 고위급 회의 ····· 23
   3.1. 멕시코 고위급 회의 결과 ····· 23
   3.2. 멕시코 커뮤니케 (Mexico Communiqué) ····· 28

4. 결어 ····· 31

참고문헌 ····· 33

첨부 : 멕시코 커뮤니케 (Mexico Communiqué) 원문 ····· 34

표 목차

► 표 1. 부산파트너십 10대 지표 ····· 9
► 표 2.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 참여 수원국 ····· 14
► 표 3. 부산파트너십 4대 원칙별 10대 지표 ····· 15
► 표 4. 부산파트너십 10대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 ····· 20
► 표 5. 부산파트너십 이행점검을 위한 멕시코 고위급 회의 주요내용 ····· 24

그림 목차

► 그림 1. OECD DAC 고위급회담의 발전과정 ····· 5
► 그림 2. 21세기 국제 개발협력의 규범 및 동향 ····· 6
► 그림 3. 수원국 시스템 품질과 공여국의 수원국 시스템 이용간의 상관관계 ····· 17
► 그림 4. 공통기준 시스템에 근거한 공여국의 ODA 보고체계 향상도 ····· 19
► 그림 5. ODA 보고 시스템별 국가 수 (2013년 기준) ····· 19

1. OECD DAC 중심의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및 개발협력의 규범은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의 고위급회담(High Level Forum, HLF)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 DAC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OECD DAC 공여국의 동료검토(Peer Review)의 원조효과성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하며, 전 세계 유수 싱크탱크(think tank)들의 원조효과성 측정을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1] 총 네 차례 개최된 'OECD DAC 고위급회담'은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MDGs)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원조제공 과정의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원조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논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제1차 OECD DAC 고위급회담은 2003년 이태리 로마에서 '원조조화를 위한 고위급회담'으로 시작되었다. 제1차 OECD DAC 고위급회담은 2002년 있었던 '개발재원에 대한 몬테레이 회의 (Monterrey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의 결과인 '몬테레이 컨센서스 (Monterrey Consensus)'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하여 OECD DAC에 의해 구성된 특별팀(task force team)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몬테레이 컨센서스는 M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원국 주인의식과 파트너십, 상호책무성과 원조 집행과정의 조화, 그리고 공여국 간 원조 성과에 대한 책임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제1차 OECD DAC 고위급회담 결과, 참여국들은 '로마선언 (Rome Declaration)'에 합의하면서 주인의식, 원조조화, 상호책무성 뿐 아니라, 원조예측성, 투명성, 원조일치와 같은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중 특히 수원국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의 3대 핵심 분야가 제시되었다. 몬테레이 컨센서스 및 로마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파트너십과 주인의식의 개념은 1996년 OECD에 의해서 발표된 '21세기 개발협력전략 (Shaping the 21st Century)'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

1) 예 : 브루킹스연구소 상하 국제경제개발연구소(Global Economic and Development)와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의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QuODA)

이후 2005년 원조효과성에 대한 제2차 OECD DAC 고위급회담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파리 고위급회담에 참석한 공여국 및 수원국,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들은 5대원칙(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결과를 위한 관리, 상호책무성)과 13개 지표[2]를 제시하는 '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3]에 합의하였다. 파리선언의 5대원칙은 로마선언의 3대 핵심 분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던 상호책무성과 결과를 위한 관리의 개념이 더해진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결과를 위한 관리는 파리 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이전인 2004년 모로코 마라케에서 열린 제2차 '개발결과를 위한 관리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MfDR)' 회의의 결과인 '합동 마라케 선언 (Joint Marrakech Memorandum)'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리선언은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및 개발협력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제3차 OECD DAC 고위급회담은 파리선언 이행의 중간점검을 위해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는 '아크라행동강령 (Accra Agenda for Action)'이 합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① 시민사회의 개발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 ② 남남 및 삼각협력의 효과성, ③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차별적 접근의 중요성, 그리고 ④ 원조투명성이 강조되었다.

우선, 아크라 고위급회담은 시민사회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시민사회의 개발에 대한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둘째, 아크라 회담은 또한 전통적인 형태의 공여국-수원국의 관계를 뜻하는 북-남(North-South)의 원조체계를 벗어나는 형태인 남-남(South-South)간의 협력체계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남남협력의 공여국은 여전히 전통공여국의 원조를 받고 있으나 국가 소득수준이 더 낮은 수원국[4]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즉 공여국

2) 2005년 파리선언 합의 당시 개발된 지표는 총 12개로써, 지표 1에서 12까지 나열되었다 (지표 2, 5, 10은 각각 a, b 두 개의 세부지표로 다시 나뉜다). 이 중 지표 2b와 5b를 제외한 모든 지표들은 각각의 목표치가 제시되어 2010년까지 이행하도록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파리선언 이행 최종 모니터링 당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지표 2b 및 5b는 측정과정에서 제외시키고, 지표 2a, 5a, 10a, 10b를 각각 독립적인 지표로 인정하여 파리선언의 지표는 총 13개로 재정립 하였다 (지표 1, 2a, 3, 4, 5a, 6, 7, 8, 9, 10a, 10b, 11, 12).

3) 파리선언 지표 및 이행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소진 (2012).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연구.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0호. 한국국제협력단' 및 임소진 (2012). 한국 ODA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평가지표 이행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5호. 한국국제협력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4) 남남협력의 수원국은 남남협력의 공여국인 중소득국(Middle Income Countries, 이후 MICs)과 비교하여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 이후 LICs) 및 최빈개발도상국(Least Developing Countries, LDC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자 수원국인 신흥경제국(emerging economies)[5]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남협력이 효과적이라 평가되는 이유는 남남 국가간의 수평적 관계(horizontal partnership)에서 상호신뢰(mutual trust)를 바탕으로 상호이익(mutual benefit)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남남협력 수원국은 남남협력 공여국의 최근의 개발경험을 학습(learning)하고 공유(knowledge sharing)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셋째, 아크라 회담에서 새롭게 강조된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차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이후 G20와 차별하여 취약국 그룹을 의미하는 g7+가 설립되고 '개발을 위한 효과적 제도와 정책의 새로운 컨센서스 (New Consensus on Effective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Development, New Deal)'가 합의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크라행동강령을 통해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사회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후 IATI)'를 발족하게 되었다.

제4차 OECD DAC 고위급회담은 고위급회담 시리즈의 마지막 회의로써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국내에서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후, 부산총회)라 명명되었으며, 원조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회의로 기록되고 있다. 부산총회는 2010년까지 이행이 계획된 파리선언 이행의 최종점검과 함께, 달성이 미비한 지표(unfinished business)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부산총회는 원조중심의 국제사회 논의를 '개발협력'으로 확대하여 '원조효과성' 논의에서 '효과적 개발협력' 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6]을 가져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조를 중심으로 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관계였던 원조활동이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의회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개발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넓은 의미의 포괄적 파트너십 체제인 개발협력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부산총회 이후 국

5) 신흥경제국은 대부분의 MICs를 의미하며, 특히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 일부에서는 부산총회를 통해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화되었다고도 하나, 부산총회 당시 개발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부산총회 결과문서에서는 '개발효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효과적 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효과적 개발협력'의 의미로써 '개발효과성'을 사용하고 있다.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효과적 개발협력'에 대한 정의 구분은 '임소진 (2012).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연구.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0호. 한국국제협력단' pp. 11-1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사회는 이러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on, 이후 GPEDC)'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는 또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Busan Global Partnership)'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 함께, 전통적 원조재원(traditional aid) 뿐 아니라 비원조재원(non-traditional aid)을 포함하는 개발재원(development finance)의 개념이 확산되었다. 이를 계기로 Post-2015 글로벌 목표 수립 논의과정에서도 비원조재원의 개발에 대한 기여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나아가 OECD 통계체계에 비원조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원조의 재정의가 논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한해는 원조 및 개발재원에 대한 재정의가 수립되는 중요한 한해가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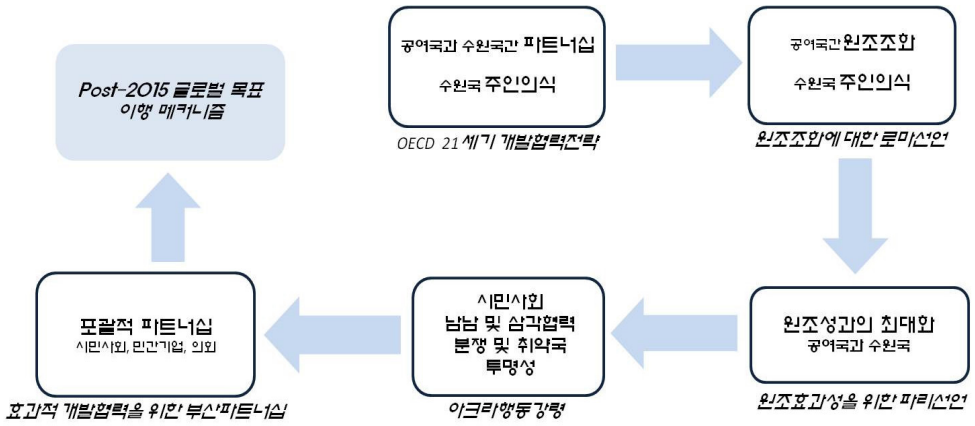
한편, 국제사회는 그동안 OECD 중심으로 이루어진 원조 및 개발협력 제공과정을 향후 Post-2015 개발의제 이행과정과 연계하기 위해 UNDP와 함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부산파트너십)의 이행지원 사무국을 구성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OECD-UNDP 연합지원팀(OECD-UNDP Joint Support Team)이 구성되어 부산파트너십 10대 지표의[7] 이행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파트너십의 10대 지표는 2011년 부산총회 이후 약 6개월의 기간을 거쳐 개발되었다. 부산파트너십 10대 지표는 MDGs 달성기한에 맞추어 2015년을 이행 목표로 하였으며, 파리선언 지표의 일부와 함께 다양한 주체 및 새로운 의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부산파트너십의 10대 지표는 파리선언과 마찬가지로 국제 개발협력의 주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OECD DAC 고위급회담의 발전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7) 부산파트너십의 10대 지표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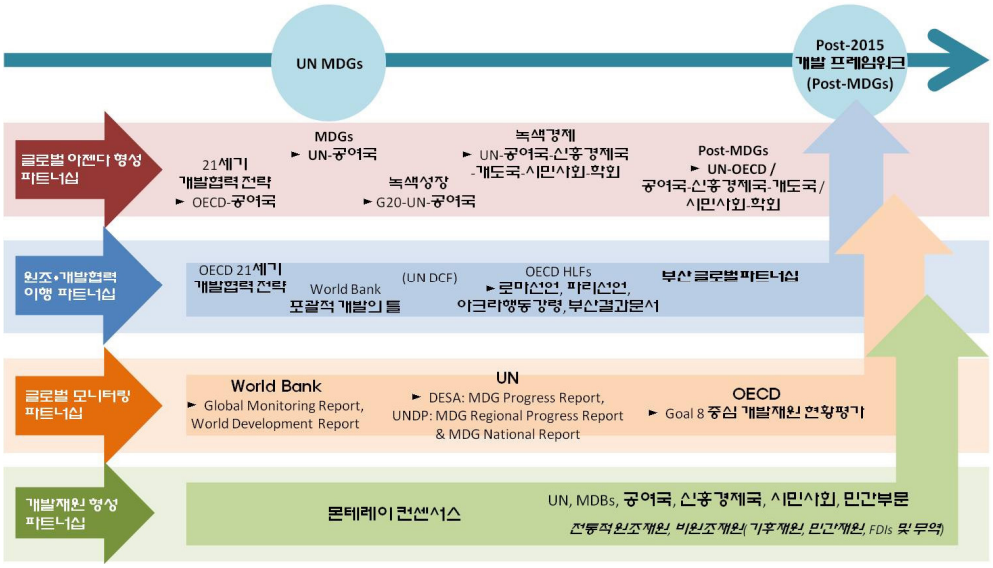
► 그림 1. OECD DAC 고위급회담의 발전과정



출처 : 저자작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 DAC 고위급회담의 결과인 파리선언과 부산파트너십은 21세기 초 국제 개발협력 규범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이 OECD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국제 개발협력의 주요 의제 및 메커니즘과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형성되고 상호영향을 주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OECD의 21세기 개발협력전략은 이후 개발재원에 대한 몬테레이 컨센서스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파리선언의 원칙을 내포한 부산파트너십은 Post-2015 개발의제 이행 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산총회에서 시작된 비원조재원 및 다양한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는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아크라행동강령에서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투명성은 부산파트너십을 거쳐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의 상호책무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혁명'에서 '책무성혁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21세기 국제 개발협력의 주요 규범 및 동향 그리고 이를 형성하고 있는 각 메커니즘은 그림 2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 그림 2. 21세기 국제 개발협력의 규범 및 동향



출처 : 저자작성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MDGs 및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같은 글로벌 의제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면, 이러한 글로벌 의제의 이행을 위한 이행 메커니즘이 의제 형성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즉, 파리선언과 부산파트너십과 같은 원조 및 개발협력 지원과정에 대한 이행 메커니즘이 MDGs 목표 달성을 지원하여 개발도상국(이후, 개도국)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커니즘은 모니터링이라 할 수 있는데, 파리선언 및 부산파트너십 이행의 모니터링은 원조 및 개발협력 지원 과정의 효율성 강화와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지표 이행의 모니터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MDGs 목표 달성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글로벌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란 그림 2에서와 같이 세계은행, UN 및 OECD의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는 수준이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Post-2015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정의 모니터링은 부산파트너십의 체계와 UN DCF와 같은 기존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결합되어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부산총회를 통해 OECD와 UNDP의 연합지원팀이 발족되면서, OECD 중심의 이행체계(파리선언-부산파트너십)와 UN의 이행체계(부산파트너십-UN DCF)가 일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을 위한 재원 활성화는 위한 메커니즘인데, 이는 위의 모든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아 논의 및 방향성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동향은 OECD 및 UN, 또는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의 메커니즘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특히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형성을 앞두고 부산파트너십의 원조 및 개발협력 지원과정과 글로벌 규범이 UN의 개발협력포럼(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DCF)이 OECD의 메커니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Post-2015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메커니즘으로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소진, 2013; Janus, Klingebiel and Mahn, 2014). 나아가 기존의 세계은행, UN, OECD의 독립적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독립적 모니터링 기능이 개발되어 Post-2015 글로벌 목표 이행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소진, 2013).

이와 관련하여, 부산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 결과 논의를 위한 제1회 고위급 회의가 2014년 4월 15일-16일 양일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는 부산파트너십과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의 연계를 위해 "제1회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고위급 회의 : 포괄적 Post-2015 개발의제를 향한 노력 (First High-Level Meeting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Building Towards an Inclusive Post-2015 Development Agenda)"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통해 부산파트너십과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부산파트너십과 Post-2015 글로벌 의제의 포괄적 파트너십과의 연계를 위한 멕시코 고위급 회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2.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이행

2.1.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의 이해

2011년 부산총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Post-Busan 임시그룹 (Post-Busan Interim Group, 이후 PBIG)'은 약 6개월 동안 총 세 번의 회의를 통해 새로운 부산파트너십 지표를 개발하였고, 그 결과가 2012년 6월 28일-29일 양일간 열린 OECD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8] PBIG은 부산파트너십 4대 원칙(주인의식, 결과중심, 포괄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별 지표를 개발하지 않고, 10대 지표만 별도로 개발하였다. 이는 파리선언이 5대원칙(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결과를 위한 관리, 상호책무성)별 지표를 개발한 것과는 비교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파리선언과 비교하여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 과정에는 '아랍공여국'의 참여가 단연 돋보인다. 부산총회 시기까지는 국제규범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아랍공여국은 2013년 9월 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OPEC 펀드(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후 OFID)가 주최한 '부산파트너십 고위급 회의 준비 워크샵'을 시작으로 부산파트너십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부산결과문서(Busan Outcome Document, BoD) 작성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부산파트너십 지표를 이행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부산파트너십 10대 지표는 파리선언의 지표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한계를 반영하고, 부산총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공약 중 포괄적 파트너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즉, 부산지표 1은 파리지표 1, 9, 11을 모두 반영하여 '수원국 결과 프레임워크'라는 하나의 지표로 정리한 것이고, 부산지표 5, 6, 7, 9 10은 각각 파리지표 7, 3, 12, 2/5, 8을 그대고 반영하거나 일부 수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지표 2, 3, 4, 8은 파리지표에는 없었던 새로운 지표라 할 수 있다. 부산파트너십 10대 지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

8) PBIG의 부산파트너십 지표 개발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소진 (2012). 한국 ODA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평가지표 이행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5호. 한국국제협력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 표 1. 부산파트너십 10대 지표

지표 1. 수원국 우선사항을 충족하는 결과중심의 협력		
지표 정의	■ 수원국 결과 프레임워크 : 국가개발전략과 목표의 모니터링 및 평가 (Monitoring and Evaluation, 이후 M&E) 시스템 기반 수원국 접근법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과 프레임워크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및 목표치를 (공여국의 지원전략에) 통합 (incorporation) ▸수원국 국가지표와 M&E 과정 (processes) 이용 ▸수원국 통계시스템과 데이터수집 역량 강화	
측정 방법	■ 수원국 결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공여국 비율 ▸공여국의 수원국 결과 프레임워크 이용은 3단계로 나누어 수원국이 평가 (High, Medium, Low scale) ▸수원국의 결과 프레임워크 이용가능한 수준이 아닌 경우, 공여국은 수원국의 결과 프레임워크 개발 지원노력에 대해 평가받게 됨	
지표 구성	분자	수원국 결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공여국 수
	분모	전체 공여국 수
목표치	■ 수원국 내 모든 공여국이 수원국 결과 프레임워크 이용	
데이터 출처	■ 수원국 정부	
지표 2. 개발활동의 참여와 기여를 최대화하는 환경에서의 시민사회 운영		
지표 정의	■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측정 방법	■ CIVICUS[9]가 개발한 시민사회환경지수(Enabling Environment Index, 이후 EEI)를 기반으로 한 정성적 평가 ■ 평가를 위한 5대 핵심 분야 선정 ▸법적 프레임워크 ▸정치적 상황 ▸거버넌스 상황 ▸사회·경제적 상황 ▸사회-문화적 환경·시민사회 참여의 문화	
지표 구성	■ CIVICUS EEI	
목표치	■ 지속적 향상	
데이터 출처	■ CIVICUS EEI	
지표 3. 개발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기여		
지표 정의	■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정책 및 전략 개발 및 이행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참여와 기여 확대	
측정 방법	■ 정부-기업 간 대화 프레임워크(Public-Private Dialogue, 이후 PPD)를 기반으로 한 기반으로 한 정성적 평가 ▸정부-기업 간 대화를 촉진하는 제도화 된 메커니즘 또는 공식적인 구조 ▸정부와의 대화에 민간기업 대표 참여 ▸정부-민간기업 간 대화의 성과(outcomes)에 대한 기초자료 (예 : 변화(reforms) 제안서 개수와 변화 진행여부)	

지표 구성	■ PPD 인덱스
목표치	■ 지속적 향상
데이터 출처	■ 세계은행연구소(World Bank Institute)와 UNDP-OECD 연합지원팀의 데이터
지표 4. 투명성 : 개발협력에 관한 정보 공개	
지표 정의	■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후 IATI)와 OECD DAC 공여국 통계보고 시스템(Creditor Reporting System, 이후 CRS)의 공통기준(common standard)
측정 방법	■ 공여국의 공통기준 이행정도 ▸ 과거, 현재, 미래의 재원흐름 정보 (수집) 가능성 ▸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 (종합적 내용) ▸ 더 넓은 범위 및 참여 (ODA 이외의 정보수집, 선진공여국 이외 국가들의 참여) ▸ 시기적절함에 대한 강조와 개발자금정보의 업데이트 빈도수 증가
지표 구성	■ 공통기준 이행여부
목표치	■ 2015년 말까지 모든 공여국이 원조투명성 공통기준 시행
데이터 출처	■ IATI ■ OECD DAC CRS및 FSS[10]
지표 5a. 개발협력 예측성 (1년)	
지표 정의	■ 파리선언 지표 7 변경적용 ▸ 반드시 수원국 정부에 통보된 금액만을 원조예측성 측정범위에 포함
측정 방법	■ 공여국 집행예정액 중 집행된 원조금액 비율 ▸ 공여국의 수원국 현지사무소 보고시스템에서 공여국에 의한 데이터 수집
지표 구성	분자: 공여국이 n년도에 집행한 보고된 원조금액 목표치: 공여국이 n년도에 집행하고자 계획한 원조금액
목표치	■ 전체 공여국 대상, 수원국 회계연도 기준 공여국 집행예정액 중 집행되지 않은 원조금액 비율 2015년까지 1/2로 감소
데이터 출처	■ 공여국 정부
지표 5b. 개발협력 예측성 (중기)	
지표 정의	■ 공여국의 향후 3년간 지출계획 여부에 대해 수원국이 결정 - 개발 중 ▸ 특정 사업에 지원되는 또는 협력의정서에 의해 합의된 미래 원조금액 예측 규모 그리고 원조방식과 같은 공여국의 수원국 내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 지출계획에 포함 ▸ 수원국 정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공된 수치로 기록
측정 방법	■ 향후 지출계획 그리고/또는 향후 최소 3년간 이행계획에 따른 예상 원조금액

지표 구성	■ 한 수원국 내 단일한 공여국별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 ▸측정치 t년도 = 평균치 (a^{t+1}, a^{t+2}, a^{t+3}) ▸at+n은 t+n년도를 다루고 있는 향후 지출계획의 t년도 말의 가능성에 따른 2진수의 값을 나타냄. 만약 계획이 있는 경우에 1, 계획이 없는 경우에 0으로 계산됨. ▸정부부문에 대한 원조에 적용	
목표치	■ 한 수원국 내 공여국 전체의 향후 지출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원조비율 1/2로 감소	
데이터 출처	■ 수원국 정부	
지표 6. 의회의 정밀검토에 따른 정부의 원조 예산		
지표 정의	■ 파리선언 지표 3 변경적용 ▸연간예산이란 수원국의 연간예산을 의미 ▸1년 단위는 수원국의 회계연도를 의미 ■ 수원국 예산법에 지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입법부의 예산안 통과가 요구됨	
측정 방법	■ 수원국 입법기관에 의해 승인된 연간예산에 기록된 집행예정 원조비율	
지표 구성	분자	n년도 연간예산에 기록된 원조금액
	목표치	공여국이 n년도에 집행하고자 계획한 원조금액 (지표 5a 측정방법에 사용된 분모와 동일)
목표치	■ 수원국 국가예산에 기록되지 않은 정부부문에 대한 원조흐름을 1/2로 감소 ■ 최소 85%의 원조재원 수원국 국가예산에 기록	
데이터 출처	■ 공여국 및 수원국 정부	
지표 7. 포괄적 검토에 의한 개발협력 주체간 상호책무성 강화		
지표 정의	■ 다음의 5가지 범주 중 4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상호평가(mutual assessment)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수원국과 공여국간 합의된 원조정책 또는 전략 수립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 국가차원의 원조효과성 평가를 위한 목표치 수립 ▸지난 2년 동안 목표치 달성여부에 대한 수원국과 공여국간 합동평가 실시 ▸평가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지방정부, 의회의 적극적 개입 ▸평가결과 대중 공개	
측정 방법	■ 합의된 공약 이행 향상정도를 포괄적이고 상호적으로 평가하는 수원국의 비율 ▸파리선언 지표 12 평가방법 개선 적용	
지표 구성	분자	상호평가(mutual assessment) 보유 수원국 수
	목표치	전체 수원국 수
목표치	■ 모든 수원국의 포괄적인 상호평가 검토 수립	
데이터 출처	■ 수원국 정부 ■ UNDESA 상호책무성 분석자료	

지표 8.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지표 정의	■ 개발 중 ▸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재원배분 추적 ▸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재원배분에 대한 정보 공개	
측정 방법	■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재원배분 추적시스템 보유 수원국 비율	
지표 구성	분자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재원배분 추적시스템 보유 수원국 수
	분모	전체 수원국 수
목표치	■ 모든 수원국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재원배분 추적시스템 수립	
데이터 출처	■ 수원국 정부 (국가별 선택사항) ■ UN Women	
지표 9a. 수원국 공공재정(PFM) 시스템의 품질		
지표 정의	■ 세계은행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이후 CPIA) 지표 13	
측정 방법	■ 파리선언 지표 2a	
지표 구성	■ CPIA 단계	
목표치	■ 2015년까지 수원국 절반의 PFM·CPIA 점수 최소 1단계 (0.5점) 이상 향상	
데이터 출처	■ 세계은행	
지표 9b. 수원국 PFM 시스템 및 공공조달시스템 이용		
지표 정의	■ 파리선언 지표 5a와 5b 정의	
측정 방법	■ 파리선언 지표 5a와 5b 통합 적용 ■ 수원국 PFM 시스템과 공공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원국 정부부문에 대해 집행된 원조금액 비율	
지표 구성	분자	수원국 시스템을 이용한 원조금액 (a, b, c, d의 평균치) a. 국가예산집행절차를 이용하여 수원국 정부부문에 대해 집행된 원조금액 b. 국가재정보고절차를 이용하여 수원국 정부부문에 대해 집행된 원조금액 c. 국가회계감사절차를 이용하여 수원국 정부부문에 대해 집행된 원조금액 d. 국가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원국 정부부문에 대해 집행된 원조금액
	목표치	수원국 정부부문에 대해 집행된 총 원조금액

목표치	■ PFM 시스템 수준평가 5점 이상 수원국의 경우, 2015년까지 공여국 전체의 PFM 및 조달시스템 이용 차이(gap) 2/3로 감소 ■ PFM 시스템 수준평가 3.5~4.5점 수원국의 경우, 2015년까지 공여국 전체의 PFM 및 조달시스템 이용 차이(gap) 1/3로 감소	
데이터 출처	■ 공여국 정부	
지표 10. 원조비구속성		
지표 정의	■ 파리선언 지표 8 정의	
측정 방법	■ 파리선언 지표 8 정의	
지표 구성	분자	비구속화 원조금액
	분모	총 원조금액
목표치	■ 지속적 향상	
데이터 출처	■ OECD DAC CRS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OECD, 2012; OECD/UNDP, 2012, 2014b

사실상 2012년 6월 부산파트너십 10대 지표 발표 당시, 새로운 지표 중 특히 지표 2와 3의 측정방법 등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지표 4의 공동기준 역시 미완의 상태였다. 이는 이후 부산파트너십 집행위원회(Steering Committee) 회의 및 OECD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회의를 통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의 지표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부산파트너십의 이행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2015년까지를 목표로 잠정적으로 합의되었다. 일부 지표가 미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파트너십 지표의 이행을 시작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지표가 파리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일부 수정한 정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12년 시작된 부산파트너십의 이행은 이후 2013년 말 첫 모니터링을 시작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는 2014년 4월 멕시코 고위급 회의(High Level Meeting, HLM)[11]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되었다.

9) 세계 시민사회 참여연대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10) OECD DAC 공여국의 향후집행계획 (Forward Spending Survey)

11) HLM은 각 국가의 장관급이 참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부 이를 '장관급 회의'라 부르기도 한다.

2.2. 제1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 결과

제1차 부산파트너십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은 부산파트너십의 정신인 '수원국 중심(country focused)'의 '자발적 참여 (voluntary based)'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즉,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에 참여하기로 의사를 밝힌 총 46개 수원국(표 2 참고) 내 공여국 및 수원국의 부산파트너십 이행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다.

► 표 2.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 참여 수원국

지역구분	모니터링 참여 수원국
아프리카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카보베르데,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수단, 탄자니아, 토고
아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동티모르, 베트남
태평양	키리바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사모아
라틴아메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메이카, 페루
유럽 및 CIS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코소보, 몰도바, 타지키스탄
북아프리카 및 중동	이집트, 팔레스타인[12]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OECD/UNDP, 2014b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총괄 및 분석은 OECD-UNDP 연합지원팀에서 담당하였으며, OECD-UNDP 연합지원팀은 전체 지표 중 총 6개 지표(1, 5, 6, 7, 8, 9)는 수원국 내 공여기관 및 수원국 자체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나머지 4개 지표(2, 3, 4, 10)는 기존 글로벌 프로세스 또는 정보출처의 데이터(예 : 국제기구 등)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 중 공여국 데이터는 각 수원국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공여국별로 정리하여 각 공여국 담당기관에게 데이터를 송부하여 데이터 검증과정을 거쳤다.

12) 팔레스타인은 공식적으로는 국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여 수원국 수에 포함되지 않음.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 분석은 각각의 지표를 부산총회에서 합의된 4대 원칙에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즉, 표 3과 같이 각 원칙별 관련 지표를 연계하여 분석이 되었는데, 이때 주인의식과 결과중심은 지표별 상호연관성에 따라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파트너십 10대 지표 개발과정에서 부산총회에서 합의되었던 4대 원칙과는 무관하게 각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다시 4대 원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각 지표를 원칙별로 정리한 것이다. 그 이유는 부산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은 부산파트너십을 해당 공여국 및 수원국이 얼마나 잘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여국과 수원국의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행동변화를 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지표를 4대 원칙별로 연계하여 분석하고, 각 원칙에 대한 공여국 및 수원국의 행동변화를 논의하였다.

► 표 3. 부산파트너십 4대 원칙별 10대 지표

부산파트너십 4대 원칙	부산파트너십 10대 지표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수원국의 주인의식 / 결과중심	지표 1. 수원국 우선사항을 충족하는 결과중심의 협력
	지표 6. 의회의 정밀검토에 따른 정부의 원조 예산
	지표 9. 수원국 공공재정시스템의 질적향상 / 공여국의 수원국 공공재정 시스템 및 공공조달 시스템 이용
	지표 10. 원조 비구속성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지표 2. 개발활동의 참여와 기여를 최대화하는 환경에서의 시민사회 운영
	지표 3. 개발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기여
	지표 8.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	지표 4. 투명성 : 개발협력에 관한 정보 공개
	지표 5. 개발협력 예측성(1년/중기)
	지표 7. 포괄적 검토에 의한 개발협력 주체 간 상호책무성 강화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OECD/UNDP, 201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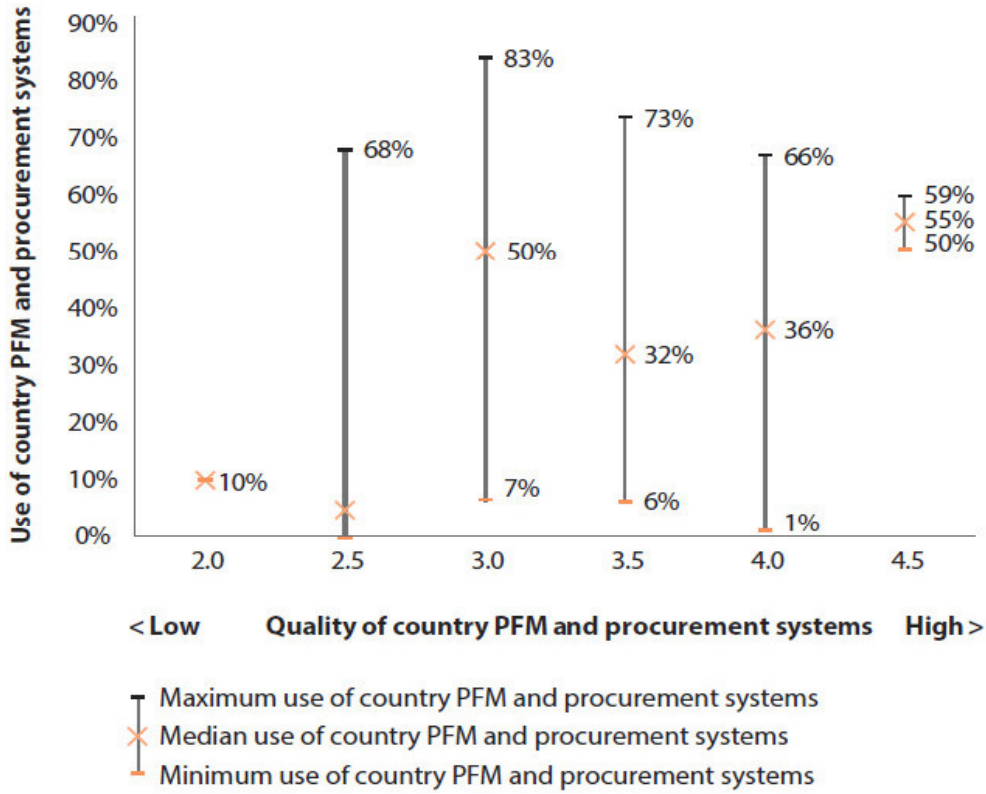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부산파트너십의 이행은 절반의 (긍정적) 성공이라 할 수 있다 (the glass is half full). 이는 부산파트너십 목표 달성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이행이 실현되고 있는 평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각 원칙별로 살펴보면, 수원국의 주인의식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부산파트너십의 핵심인 포괄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나아가 비국가주체인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과 같은 주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투명성의 경우, 긍정적 결과가 점점 확대되고는 있으나, 수원국이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필요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중심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원칙에 해당하는 지표별 모니터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수원국의 주인의식 / 결과중심 (지표 1, 6, 9)

파리지표 1, 9, 11을 연계하여 개발된 부산지표 1의 결과프레임워크 이용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에 비해 원조의 예산화(지표 6)는 2010년 57% 수준에서 2012년 64%까지 향상되었으며, 원조 비구속화(지표 10) 역시 2010년 77%에서 2012년 79%로 어느 정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원국의 공공재정시스템의 질적향상(지표 9a)의 경우 2010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전체 개발협력 활동의 약 49%만이 수원국 시스템을 이용(지표 9b)하고 있으며 이 역시 2010년 이후 큰 변화없이 같은 수준이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국의 시스템 품질향상과 공여국의 수원국 시스템 이용은 파리선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비해서 많은 수원국에서 여전히 공여국이 수원국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수원국 시스템의 질적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오고 있다. 그러나 금번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원국 시스템의 품질과 공여국의 수원국 시스템 이용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참고).

► 그림 3. 수원국 시스템 품질과 공여국의 수원국 시스템 이용간의 상관관계



출처 : OECD/UNDP, 2014b: 49

◉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지표 2, 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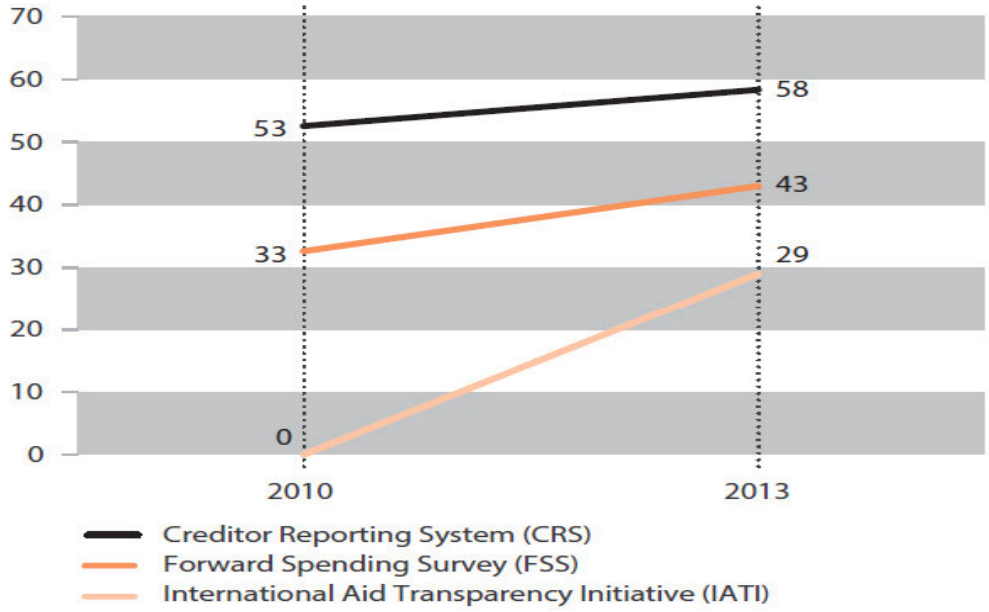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파트너십에서 새롭게 제시된 지표 2, 3, 8, 즉 포괄적 파트너십 원칙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행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표에 대한 개발이 계속되었었다는 점에서 이행기간이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지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번 보고서에서도 이 지표들을 '새로운 지표 (new indicators)'로 명명하면서 이들 지표의 이행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 지표(지표 2)의 경우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정성적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였으며, 민간부문에 대한 지표(지표 3)의 경우 성과측정을 위한 적합한 대용치(proxy)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합한 측정방법을 위한 시범연구가 아직 진행중이다. 그러나 성별이 구분된 재원배분 추적시스템(지표 8)은 46개 수원국 중 12개국에서 구축된 상태이며, 4개국은 시스템은 존재하나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 (지표 4, 5, 7)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지표 4의 '공통기준 (common standard)'이란 IATI, OECD CRS 및 FSS의 기준에서 일부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번 보고서는 공통기준에 근거한 공여국의 ODA 보고체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림 4 참고), 2013년 기준 22개 공여국이 3가지 보고시스템 모두에 ODA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5 참고). 이와 함께, 원조예측성(지표 5) 역시 2010년 기준 79%이었던 결과가 2012년 기준으로 84%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책무성 지표(지표 7)의 경우, 파리지표는 3대 범주를 기준으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부산지표는 표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5대 범주로 확대하여 성과측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5대 범주 중 4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상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주하는데, 금번 모니터링에 참여한 46개 수원국 중 27개국(약 59%)에서 상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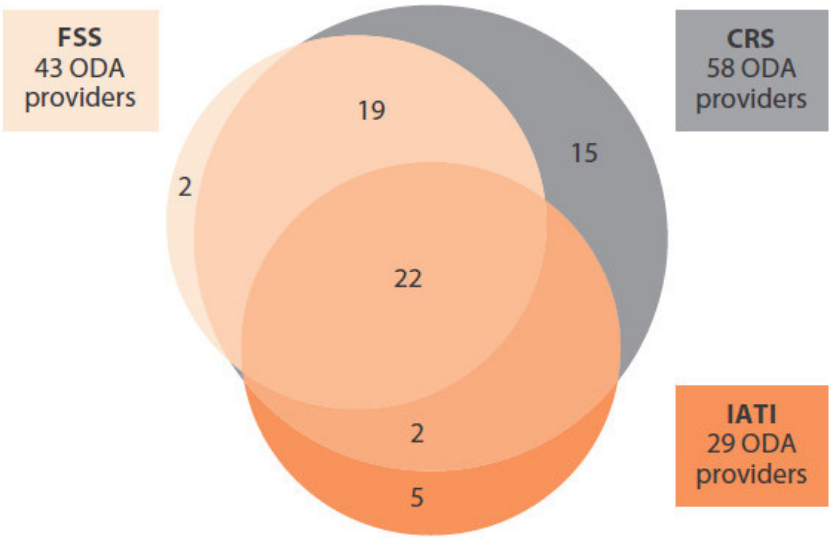
► 그림 4. 공통기준 시스템에 근거한 공여국의 ODA 보고체계 향상도



* CRS : OECD DAC 공여국 통계 보고 시스템
* FSS : OECD DAC 공여국 향후 집행 계획

출처 : OECD/UNDP, 2014b: 80

► 그림 5. ODA 보고 시스템별 국가 수 (2013년 기준)



출처 : OECD/UNDP, 2014b: 81

지금까지 정리한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의 결과를 각 지표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 표 4. 부산파트너십 10대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

지표	목표달성정도	성과평가
1. 수원국 우선사항을 충족하는 결과중심의 협력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함	공여국의 수원국 지표·통계·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이용 향상은 수원국의 결과 프레임워크, 주인의식 및 책무성의 강화가 가능하게 함
2. 개발활동의 참여와 기여를 최대화하는 환경에서의 시민사회 운영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함	CSOs가 독립적 개발 주체로서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은 CSOs의 개발에 대한 기여를 최대화하는 효과가 가능할 것임
3. 개발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기여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함	개발정책 기획 및 이행과 민간부문의 개발활동 참여를 위한 환경 개선 과정에서의 민간부문 참여 촉진은 민간부문의 개발에 대한 기여를 최대화하는 효과가 가능할 것임
4. 투명성: 개발협력에 관한 정보 공개	긍정적 시작이기는 하나, 더 높은 성과가 필요함	투명성을 위한 공통기준(common standard)을 이행하는 것은 ① 개발협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중의 접근성이 증가하고, ② 강화된 책무성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제공할 것임
5. 개발협력 예측성	(1년) 일부 성과 보임 (중기) 긍정적 시작이기는 하나, 더 높은 성과가 필요함	미래개발협력 재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① 분야내/간 재원에 대한 더 나은 계획수립 및 배분과 ② 국가 개발전략의 더 나은 이행이 가능하게 함
6. 의회의 정밀검토에 따른 정부의 원조 예산	일부 성과 보임	원조재정을 수원국 국가예산에 포함 하는 것은 ① 원조가 수원국의 우선과제와 일치되고, ② 수원국의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좀 더 정확하고 포괄적 예산수립과 투명성 및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7. 포괄적 검토에 의한 개발협력 주체 간 상호 무성 강화	일부 성과 보임	포괄적 성과평가(progress review)는 국가차원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상호책무성 기반을 제공함
8.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긍정적 시작임	공공재정 배분의 성별 구분과 재원배분 추적은 남녀 모두에게 최대 혜택이 가능한 ① 정책결정 과정의 정보제공, ②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 ③ 재원배분을 위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함

9. 수원국 공공재정시스템의 질적향상 / 공여국의 수원국 공공재정 시스템 및 공공조달 시스템 이용	이전 달성정도 유지, 향후 더 많은 향상이 필요함	수원국 제도 및 시스템을 이용은 ① 대상 제도 및 시스템의 질적향상, ② 행정부담 감소, ③ 시민과 의회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무성 향상이 가능하게 할 것임
10. 원조 비구속성	일부 성과 보임	조달 및 서비스가 일정 지역에 구속되지 않는 개발협력은 ① 원조가 수원국의 우선과제와 일치되고, ② 더 나은 원조의 가치(value for money) 생산이 가능하게 함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OECD/UNDP, 2014b

2.3.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 및 해결과제

부산파트너십 이행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각 지표를 4대 원칙별로 연계하여 제시한 것은 부산파트너십 4대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부산 10대 지표의 개발 당시, 한국과 같은 국가를 중심으로 4대 원칙별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행 중반부터 다시 원칙별 지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금번 보고서에서 부산 4대 원칙별 지표를 제시가게 된 것이다.

이는 부산파트너십의 각 지표가 개발협력 과정에 초점을 둔 나머지 그 지표들의 이행 결과(outcome) 및 효과(impact)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10개의 지표를 이행하여 생기는 전반적인 결과는 4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 공여국 및 수원국의 행동변화일 것이고, 그 효과는 더욱 효과적인 개발협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파트너십은 그 자체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협력 수행과정에 중점을 둔 나머지 지표 이행의 결과가 개발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로 자발적 참여 원칙으로 인해 일부 불참 국가에 대한 이행 및 모니터링이 부족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 개발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책무성 부족현상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불충분한 이행 기간을 들 수 있다. 부산파트너십 10대 지표 개발 이후 실질적 이행의 시작은 2013년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2015년까지 약 2년의 이행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첫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상당 부분의 지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가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이라고 제시된 것과 같이, 향후 약 1년 남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산파트너십이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연계되어 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향후 부산파트너십을 후속하게 될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지표에 대한 이행의 결과가 개발 결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금번 보고서에서는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지표 이행의 결과가 전반적인 수원국 개발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위한 견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고위급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는 물론이고, 행정제도의 중간단계 실무자급의 참여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많은 국제회의에서 부산파트너십과 같은 글로벌 규범에 대한 담당자 외의 고위급 인사나 중간단계의 실무자들의 참여부재가 글로벌 규범 이행에 있어서의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현실적 이행이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이후 부산파트너십 후속 원칙 및 지표의 지속적 이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보고서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부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더욱 견고한 지표의 구성 및 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2014년 멕시코 고위급 회의

3.1. 멕시코 고위급 회의 결과

멕시코 고위급 회의는 2014년 4월 15일-16일 양일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렸으며, 약 130개국의 정부대표, 그리고 국제기구, CSOs, 민간기업 관계자 등 총 1,300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금번 회의에는 중국과 같은 BRICS를 대표하는 신흥경제국의 정부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정부대표가 아닌 학계대표가 참석하였고, 브라질의 경우 브라질 개발청장이 멕시코회의에 참석은 하였으나 부산파트너십 회원국으로서가 아니라 브라질의 경험을 소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선 금번 멕시코 회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MICs에 대한 지속적 개발을 지지하는 멕시코, 칠레 및 인도네시아와 같은 새로운 신흥경제국과 기존 신흥경제국을 대표하는 BRICS 국가와의 정치적 대립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이유는 멕시코 회의의 결과물인 '멕시코 커뮤니케'에 그동안 중국이 기피해오던 '인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랍 공여국의 국제 개발협력 논의에 대한 참여가 돋보였다.

양일간 이루어진 본 회의는 크게 개회식 및 폐회식과 함께 5개의 주요세션(plenary session)으로 구성되어, 각각 ① 부산총회 이후의 성과(Progress since Busan), ② 개발을 위한 국내재원동원(Partnering for Effective Taxation and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for Development), ③ 남남 및 삼각협력과 지식공유(South-South, Triangular Cooperation and Knowledge Sharing), ④ 중소득국의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on with Middle Income Countries), ⑤ 개발파트너로서의 기업(Business as a Partner in Development)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그 외 총 36개의 개별세션(focused session)과 부대행사(Market Place)가 진행되었다.

멕시코 회의의 개회식에는 주최국인 멕시코의 Enrique Peña Nieto 대통령, Post-2015 개발의제를 주도하는 UN의 반기문 사무총장, 부산파트너십 합동지원팀을 운영하는

OECD와 UNDP의 Angel Gurría 사무총장과 Helen Clark 총재와, 부산파트너십 집행위원회의 공동의장국인 영국의 Justine Greening 국제개발부(DFID) 장관, Marty Natalegawa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Ngozi Okonjo-Iweala 나이지리아 재무부 장관이 모두 참여하였다. 주요세션 및 개별세션은 모두 Ted Talk 또는 다보스 포럼의 논의형식을 벤치마킹하여 유명 언론인의 진행과 참가자들의 짧은 의견제시와 지정된 청중의 짧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즉, 불필요한 선언문 식의 연사발언 등은 지양하고 진정한 논의 위주의 진행을 의도한 것이다. 제1세션의 경우 '포괄적 개발협력과 주인의식'과 '부산 이행점검 및 투명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으나, 이 두 부분은 모두 부산파트너십 4대원칙과 취약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제1세션은 부산파트너십 4대원칙과 취약성에 대한 총 5개의 토론문(discussion papers)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1세션을 포함한 그 외 주요세션에서 논의된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표 5. 부산파트너십 이행점검을 위한 멕시코 고위급 회의 주요내용

세션주제	핵심사항
제1세션 부산총회 이후의 성과	■ 수원국 주인의식 강화와 포괄적 파트너십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조 ■ 시민사회란 NGOs를 넘어선 노동조합 및 농민협회 등도 포함하는 의미임 ■ 의회 관련 부산파트너십 이행성과는 미비하나, 개발협력의 공식 이해관계자로서 의회와의 파트너십은 큰 의미가 있음 ■ 수원국의 효과적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과 정부 및 수원국 관련 기관의 협력이 중요함 ■ 포괄적 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중요하며, 수원국 내 각 이해관계자 각자의 역할이행이 포괄적 파트너십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CIVICUS는 최근 개발한 새로운 정보 이니셔티브(www.datashift.org)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 뿐 아니라 시민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혁명에 기여하고자 함 ■ 개발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취약성 논의라 할 수 있으며, 이제는 New Deal을 넘어서 취약국에 대한 좀 더 발전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세계 금융위기의 상황에도 개발지원은 지속되어야 하나, 정부는 반드시 납세자에 개발에 대한 결과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 ■ 국가 프로그램 작성시 상호책무성 프레임워크에 기초하는 것이 중요함 ■ 투명성은 문화가 되어야 하며, 대중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가 정보 시스템이 개방되어야 함

제2세션 개발을 위한 국내재원동원	■ 국재재원 동원은 제한된 ODA 재원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며, Post-2015 체제에서는 특히 징세시스템 개선 및 불법자금 유출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소액자금 지원보다 세수 및 FDI 등 자체 재원확대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국내재원확대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국자부채의 효과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함 ■ 민주적 통제시스템에 근거한 정부재정 책무성 메커니즘이 필요함 ■ 국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법제도의 강화, 지역차원의 투명성 강화 캠페인,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투명성 구현 등이 필요함 ■ 세수 증대를 위해 조세시스템진단도구(Tax Administrative Diagnostic Tools) 활용을 추천 ■ 세수감소는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해당하는 문제로, 의회차원의 감시역할 강화와 행정부의 개선노력이 필요함
제3세션 남남 및 삼각협력과 지식공유	■ 남남협력은 양허성 융자, 무상원조, FDI, 무역, 지식공유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임 ■ 남남협력은 북남협력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하며,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남남협력을 제도화 할 협력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 ■ 남남협력에 대한 중국의 기여와 관련, 중국은 ① 중국의 경제발전을 토대로 한 원조지원, ② 자원빈국인 중국과 자원부국인 수원국과의 무역을 통한 상호이익, ③ 단기간 발전 사례인 중국의 발전전략은 유사한 환경에 처한 수원국에 대해 모범사례 역할을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삼각협력은 남남협력과 북남협력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수행 ■ 브라질이 추구하는 남남협력은 북남협력의 보완적 협력방식이 아니므로 새로운 방법론과 평가방식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12개국과 삼각협력 제도화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음 ■ g7+의 입장에서 볼 때, g7+ 국가간 협력형태는 취약국간의 지식공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남남협력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태국의 지식공유 비교우위는 ① 아편제거를 위한 대체 개발사업, ② 보편적 의료보호 제도, ③ 식량안보에 있음 ■ 칠레의 남남협력 방식은 ① 모범사례 공유, ② 협력방식 공유, ③ 역량 및 제도강화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아랍공여국의 경우 OFID를 중심으로 최근 'Arab Development Portal'을 구축하여 아랍어 기반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볼보(Volvo)의 경우, 사회·환경·경제적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함시킨 사업모델인 새로운 다자이해관계자 접근법을 소개, 이를 통해 아프리카 근로자 고용률 증가가 가능함을 강조 ■ 한국의 경우 2004년 KSP 사업 출범 이래 49개국 내 60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지식공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토론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파악하고, 지역·국가·글로벌 차원의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

제4세션 중소득국의 개발협력	■ 현재의 소득수준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시스템(예 : MICs, LICs)은 저소득, 중저소득, 고중소득, 고소득으로 재분류되어야 함(예 : low, low-mid, high-mid, high) ■ MICs 내 다양한 국가분류를 소득수준이라는 하나의 공통요소를 기반으로 그룹화한 것은 Post-2015 논의 과정에서 MICs의 사회개발 및 불평등 문제에 중점을 두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개도국과 선진국의 구분은 기준보다는 협력방식이 더 중요한 문제로써, 개발의 질적측면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평등과 포용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구분이 필요함 ■ MICs의 경제발전의 한계(trap)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성에 기반하여 수혜자 그룹을 선정하는 한편, 국내재원동원 능력이 있는 MICs의 경우 재원활용 전략과 관련한 제도적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함 ■ MICs 내 도시화 부작용이 식수부족 및 교통체증 등의 형태로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MICs 국가들은 국가내 불평등에 처해있으며, 이는 MDGs의 절대빈곤 퇴치 목표달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국가내 모든 인구를 위한 경제·사회 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 '원조효과성을 위한 카이로 의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향후 개발과제 및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해 MICs의 체제전환 및 과정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함 ■ 효과적 개발을 위해 '사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제도적 역량과 함께 인적 역량이 발전될 수 있는 조율이 필요함 ■ MICs 국가도 여전히 공여국의 지원이 필요함 ■ MICs 국가에 대한 지원유지도 중요하지만 LICs 국가에 대해 사회적 개발,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이 개발되어야 함 ■ 아프리카의 경우,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개발을 위한 충분한 천연자원을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적 측면에서 이러한 자원을 소득수준 증가로 이어가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제5세션 개발파트너로서의 기업	■ 기업 활동은 고용창출, 세수증대, 교육 및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창출하므로, 이러한 기업관련 모범사례의 확대와 국제규범 준수 장려가 필요함 ■ 빈곤퇴치의 핵심은 생계보장이므로 ODA 역시 기업 활동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동시에 기업의 상호책무성 메커니즘을 지역적 차원에서 수립해야 할 필요 있음 ■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등의 부산파트너십 원칙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구현할 필요 있음

출처 : 저자작성[13)]

13) 표 5의 내용은 멕시코 회의에 직접 참가한 저자 자신의 기록과 외교부 및 KOICA의 내부 보고문에서 일부 인용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와 같은 본 회의 일정에 앞서, 4월 14일에는 '미완의 과제 : 부산공약 달성을 위한 전진 (Unfinished Business: Moving Forward to Meet the Busan Commitments)'이라는 주제로 사전워크샵(Pre-Workshop)이 개최되어 ①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해 소개하고, ② 수원국 시스템 이용 강화방안, ③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 ④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방안, 그리고 ⑤ 취약국의 개발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전워크샵은 본회의 제1세션의 내용과 연계된 별도의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명의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와 시민사회 참여자들이 참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제1세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부산파트너십의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를 통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의 연계를 강조한 기조연선을 하였는데, 윤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DAK를 소개하고 2015년까지 한국이 IATI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차문중 부총리 선임자문관이 제3세션의 패널로 참가하여 한국의 수원국에 대한 지식공유 경험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학계와 정부에서 각각 '굿거버넌스, 투명성 및 효과적 제도를 통한 개발결과'와 '지식공유의 확대' 개별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나아가 KOICA는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및 기업의 파트너십 체제인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에 대한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제1세션의 '투명성 및 취약성'에 대한 토론문[14]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실(EDCF)은 '기후금융과 개발파트너십'에 대한 부대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는 부산총회 주최국으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멕시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회의를 통해, 멕시코 회의 전 2014년 2월 나이지리아 아부자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되었던 바에 따라 새로운 공동의장국이 합의되었다. 2011년 부산총회 이후 2014년 4월까지 부산파트너십 집행위원회를 이끌어왔던 공동의장국이었던 영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는 이제 새로운 공동의장국인 네덜란드, 멕시코, 그리고 아프리카 대표국으로 대체된다. 네덜란드는 영국을 대신하여 공여국 대표국으로, 멕시코는 인도네시아를 대신하여 신흥경제국(MICs) 대표로,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아프리카 대표국은 나이지리아를 대신하여 수원국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아프리카 대표국의 경우 아직까지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 이후 AU)의 최종 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2014년 6월

14) http://effectivecooperation.org/wordpress/wp-content/uploads/2014/04/Transparency_and_accountability_discussion_paper_FINAL.pdf

에 있을 AU 회담(AU Summit)에서 최종 발표될 예정이면,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국으로는 우간다가 거론되고 있다.

3.2. 멕시코 커뮤니케 (Mexico Communiqué)

멕시코 고위급 회의의 결과로써 '멕시코 커뮤니케'가 발표되었다. 부산총회의 결과인 부산결과문서는 OECD 주도의 '협상(negotiations)'의 과정을 가졌다면, 멕시코 커뮤니케는 합의가 아닌 '협의(consultations)'의 과정을 가졌다. 협의과정은 멕시코 정부 주도로 약 세 차례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쳤다. 최종 커뮤니케는 ① Post-2015 개발의제의 이행과 부산파트너십(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②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결과 방안(Concrete Actions towards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sults), ③ 부산파트너십 향후 운영계획 및 역할(Working Arrangements and Evolving Role of the GPEDC), 그리고 ④ 첨부 1 – 자발적 이니셔티브(Voluntary Initiatives)와 ⑤ 첨부 2 – 집행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커뮤니케의 전문부분인 'Post-2015 개발의제의 이행과 부산파트너십'에서는 MDGs 및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부산파트너십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권의 보호와 촉진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식적으로 UN DCF를 언급함으로써, 향후 Post-2015 개발의제 이행과정에서 UN DCF와 부산파트너십 메커니즘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나아가 원조효과성에서 효과적 개발협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주요 재원으로의 ODA와 다양한 개발재원, 그리고 개도국 내 재원동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있었던 주요 국제회의의 결과, 즉 몬테레이 컨센서스, Rio+20 회의, 부산총회 등의 결과를 다시 한 번 상기하였다.

한 가지 특이할만한 점은,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중 하나인 UN 고위급패널(High Level Panel, HLP) 보고서(UN, 2013)의 최우선과제 중 일부인 '모두의 빈곤퇴치(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 개발(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일자리

창출과 포괄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의 변화(transform econ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라는 표현이 부산파트너십 이행점검 회의인 멕시코 고위급 회의 결과문에서 '모두를 위한 실질적 결과와 기회의 형성(generate tangible results and opportunities for all), 사회경제의 변화 장려(advanc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secure a sustainable future that leaves no one behind)'이라는 표현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좀 더 많은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멕시코 커뮤니케의 전문 마지막에는 북남협력은 남남협력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부산결과문서 뿐 아니라 멕시코 커뮤니케에 제시된 원칙, 공약, 향후 부산파트너십 이행방안 및 운영방안 뿐 아니라 남남협력 파트너들의 자발적 참여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커뮤니케는 나이로비선언(Nairobi Declaration)이 남남협력의 시초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커뮤니케의 두 번째 부분인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결과 방안'은 멕시코 회의의 5대 주요세션의 논의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즉, 부산파트너십 4대원칙 및 취약성으로 이루어진 제1세션인 ① 부산총회 이후의 성과와 포괄적 개발(Progress since Busan and Inclusive Development), 제2세션인 ② 국내재원동원(Domestic Resources Mobilisation), 제3세션인 ③ 중소득국 (Middle Income Countries), 제4세션인 ④ 남남 및 삼각협력과 지식공유(South-South Cooperation, Triangular Cooperation, and Knowledge Sharing), 그리고 제5세션인 ⑤ 개발파트너로서의 기업(Business as a Partner in Development)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특히 제4세션에서는 2014년 6월 23일-26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개도국 주도의 지식허브 고위급 회의(High Level Meeting on Country-Led Knowledge Hubs)'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15)]

셋째로 부산파트너십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공동의장국을 소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표국은 향후 AU 회담에서 확정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해마다 주최할 계획인 '개도국 차원에서의 부상공약 이행 점검에 대한 정기워크샵(an annual workshop to take stock and bring together partners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Busan commitments at country level)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멕시코 이후의 부산파트너십 이행에

15) 멕시코 커뮤니케 본문에 제시된 각 세션별 주요내용은 본 연구의 첨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참여 및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커뮤니케는 첨부를 통해서 총 39개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와 집행위원회 구성을 정리하였다. 자발적 이니셔티브는 각 기관에서 부산파트너십 이행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가능 환경개발에 대한 다자이해관계자 작업반(Multi-stakeholder Task Team on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Enabling Environment)은 CSO 활동가능 환경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 영국은 개발성과연계채원(Development Impact Bonds, DIB), 일본은 ODA 헌장의 검토, 한국은 부산파트너십의 학습 및 가속화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16]

16) 총 39개의 자발적 이니셔티브 및 부산파트너십 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 역시 본 연구의 첨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4. 결어

본 연구의 서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Post-2015 체제에서는 OECD와 UN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양분화 된 글로벌 규범체제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체제가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양상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 노력의 일환이 금번 멕시코 고위급 회의라 할 수 있다. 멕시코 회의에서는 OECD의 로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UN과 주최국의 상징만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만큼 부산파트너십을 UN의 체계에 흡수하여 지속시키려는 OECD 및 회원국, 즉 공여국의 노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UN 및 그 회원국, 즉 많은 수원국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OECD를 중심으로 한 파리선언은 공여국 주도의 글로벌 규범이었으며, 비록 부산파트너십이 OECD-UNDP 연합지원팀 및 수원국 정부가 포함된 집행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결국은 공여국 주도의 규범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여국의 모임인 OECD와 비교하여 대다수의 수원국이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는 UN의 논의과정에서 부산파트너십 이행 메커니즘이 멕시코에서 의도된 바와 같이 UN DCF와 연계가 가능할 것인가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파리선언 및 부산파트너십은 분명 그 이행성과가 제한적이었으며, 공여국과 수원국의 행동변화도 실질적으로 높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어찌보면 파리선언과 부산파트너십의 개발에 대한 성과는 각종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 만큼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개도국 정부 실무자와 개도국 내 공여기관 실무자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파트너십은 본부차원의 과제이지, 사무소 차원의 과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이다. 다만,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투자된 이 범지구적 노력을 그 누구도 한 순간에 폐기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부산파트너십과 그 후속체제가 MDGs 및 Post-2015 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이행체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과 함께, 본 연구의 앞부분에서도 언급한

부산파트너십의 한계를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산파트너십 이행에 대한 결과와 효과를 증명해보일 수 있다면, 수원국 입장에서도 이를 거부할 이유는 크게 없을 것이다. 따라서 Post-2015 이행체제에 부산파트너십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의 논의의 앞단에는 분명 부산파트너십을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공여국 대 수원국의 메커니즘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메커니즘이 되어버린 글로벌 파트너십의 소용돌이 안에서 지표의 이행정도를 측정하는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이행의 결과 및 효과를 측정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제 향후 Post-2015 이행 메커니즘과 부산파트너십 이행 메커니즘이 별도로 또는 연계되어 운영이 되는지의 중요성보다도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이행체계가 개발에 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임소진 (2012a).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연구.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0호.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2b). 한국 ODA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평가지표 이행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5호.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3). Post-2015 글로벌 목표 이행체제 논의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한국의 개발협력. 2013. 2호 pp. 53-69.

Janus, H., S. Klingebiel and T. Mahn (2014). How to Shape Development Cooperation? The Global Partnership an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Briefing Paper 3/2014. Bonn, DIE.

OECD (2012). Proposed Indicators, Targets and Process for Global Monitoring of 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Proposal by the Post-Busan Interim Group. DCD/DAC/EFF(2012)8/REV1. Paris, OECD.

OECD/UNDP (2012). The Global Framework of Indicators and Targets for Monitoring Busan Commitments: An Update. First Steering Committee Meeting Document 3.

_____ (2014a). First High-Level Meeting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Building Towards an Inclusiv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Mexico High Level Meeting Communiquée, 16 April 2014.

_____ (2014b).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2014 Progress Report. Report. OECD Publishing.

UN (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ited Nations.

첨부 : 멕시코 커뮤니케(Communiqué) 원문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First High-Level Meeting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Building Towards an Inclusiv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Mexico High Level Meeting Communiqué, 16 April 2014

I.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1. We, Ministers and leading representatives of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multilateral, regional and bilateral develop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parliaments,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private sector entities, philanthropic foundations, trade un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met in Mexico City on 15-16 April 2014, in a spirit of full inclusion and solidarity, for the First High Level Meeting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to build upon the outcome of Busan.

2. Global development is at a critical juncture. Despite progress on the MDGs, poverty and inequality, in their multiple dimensions and across all regions, remain the central challenges. Slow and uneven global economic growth, insecurity in supplies of food, water and energy, lack of quality education and decent work for all, and instances of conflict, fragility and vulnerability to economic shocks, natural disasters, and health pandemics are also pressing concerns in many areas of the world. Managing climate change and the global commons add further complexity to our global agenda. At the same time, the possibilities for human development are immense and we have at our disposal the means to end poverty at global scale in the course of one generation. But to achieve this, we must muster our political will for bold and sustained action for shared development, improved gender equality, and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3. As the United Nations works to design a universal agenda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st 2015, to be implemented decisively, the GPEDC will seek to advance efforts to bring about more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poverty eradication at its core, as part of the "how"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new global agenda. With this purpose, we pledge to work in synergy and cooperation with others, such as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4. Critically, the GPEDC is committed to implementing a paradigm shift from aid effectiveness to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sustained by the contribution and catalyzing effect of ODA, as the main sourc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in order to better support the long-term and broad developmental impact of a strengthened mobilization of domestic resources and the convergence of efforts of all public and private development stakeholders at all levels.

5. With this conviction, we undertake to fulfill all our commitments in support of financing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rticularly those agreed in the Monterrey Consensus and its follow up and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s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at Rio + 20, including ODA targets. Upon this foundation, we reaffirm our determination, as articulated at the Busan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to generate tangible results and opportunities for all, advanc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and secure a sustainable future that leaves no one behind.

6. We recognize that we are all part of a development agenda in which we participate on the basis of common goals and shared principles. In this context, we encourage increased efforts to support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our specific situations. We also reaffirm that South-South cooperation differs from North-South cooperation. The Nairobi Declaration forms the founding basis of South-South cooperation. The principles, commitments, actions and working arrangements agreed in the outcome document of the Busan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and in this Communiqué of the First High-Level Meeting of the GPEDC shall be references for South-South partners on a voluntary basis.

II. Concrete actions towards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sults

II.A. Progress since Busan and inclusive development

7. North-South cooperation plays a distinctive role in th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undertaken at the Busan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2011. These commitments built upon the 2008 Accra Agenda for Action, the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and the 2003 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We welcome the valuabl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PEDC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se commitments with the support of 46 countries that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e exercise, as well as the additional data provided by other relevant national reports and by entities such as the post-Busan Building Blocks. Based upon this information, we recognize the progress made in upholding the Busan principles of country ownership, focus on results, inclusiveness, and transparency and mutual accountability. However, we also recognize that many more efforts and behavioral changes are required to fully implement these commitments. The unfinished aid effectiveness agenda remains a critical concern. Thus, with renewed political will and sense of urgency, we commit to expeditiously address identified shortcomings and bottlenecks through sustained concrete actions. As we move forward, we underline the following:

Ownership of development priorities by developing countries

8. We acknowledge the actions undertaken in both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as well as by multilateral institutions to ensure that ODA is aligned to national priorities and strategies and tailored to country-specific situations and needs. In this regard, we note in particular the work of the New Deal partners in strengthening country ownership, leadership and capacity in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as well as the use of country systems in these contexts.

9. Looking ahead, we encourage recipient countries to continue promoting domestic reform and development agendas that contribute to the social and economic wellbeing of citizens and encourage donors to fully support these efforts. In this context, we agree to strengthen our actions to continue enhancing country ownership and leadership by aligning and tailoring aid to the national development agenda and context. In particular, we agree to invigorate efforts to strengthen and use country systems as the default approach and promote assessment and dialogue on the extent to which their use is appropriate, consider budget support in the appropriate mixture of delivery instruments, continue untying aid, enhance the localiz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by promoting local procurement, and support partner countries' ambitions to better coordinate, assess and manage the plurality of aid.

10. Also, in accordance to the priorities and policies set out by recipient countries, we will continue avoiding aid fragmentation pursuing division of labor under country leadership, strengthening joint programming, taking actions to address the issue of countries that receive insufficient assistance, making better use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pooled funding facilities, and, on a priority basis, ensuring the predictability of ODA flows in line with the commitments undertaken in Paris, Accra and Busan. In this context, we encourage all providers of development assistance to actively support and participate in country-led coordination mechanisms.

Focus on results

11. We recognize and encourage the broadening and strengthening of the initiatives, operational policies and instruments undertaken for improving country results frameworks in order to better manage, monitor, evaluate and communicate progress, and thus to provide a solid platform to promote scaling up of support,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and leveraging additional resources and initiatives in support of the maximization and sustainability of development results and impacts, in accordance with the priorities and policies set out by recipient countries.

Inclusive partnerships and development

12. We encourage continued progress in ensuring that all stakeholders and voices are duly acknowledged and the necessary space is given and expanded to enhance inclusive and democratic ownership of the development agenda, including through women's empowerment, in the spirit of openness, trust, and mutual respect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t and complementary roles of all development partners.

13. We encourage strengthening the critical role of parliaments in linking citizens with government, laying down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to facilitate private sector investments and revenue allocations toward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verseeing development cooperation processes and action plans.

14. We also encourage providing further support to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to enable them to assume more fully their roles in policy making, service delivery and in enhancing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t the subnational level, including through decentralization, capacity building, access to data and legal protection.

1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play an important role in enabling people to claim their rights, in promoting rights-based approaches, in shaping development policies and partnerships, and in overseeing their implementation. In this regard, we note the relevance of the Istanbul Principles and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We also reaffirm our undertaking to implement fully our respective commitments to enable CSOs to exercise their roles as independent development acto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an enabling environment, consistent with agreed international rights, that maximizes the contributions of CSOs to development and, in this context, we encourage inclusive and democratic multi-stakeholder dialogue at country level and the provision of related capacity building and supportive measures.

16. We recognize that the private sector is an important actor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partnership with the public sector and other stakeholders, as underlined in section II.E of this Communiqué.

17. We acknowledge the added value that philanthropic foundations bring to development cooperation. In particular, we welcome the voluntary Guidelines for Effective Philanthropic Engagement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the OECD network of Foundations Working for Development and encourage continuous multi-stakeholder dialogue and cooperation as appropriate to foster their implementation and follow up.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each other

18. We acknowledge global progress made towards increase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s more providers of cooperation are improving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the scope and results and impacts of their cooperation actions and budgets, including through the efforts of those of us who have committed to do so to implement the common standard by 2015, taking into account the statistical reporting systems of the OECD-DAC and the complementary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To ensure that the gains made on transparency at the global level translate into real benefits at country level, we encourage accelerated efforts to fulfill the commitments made in Paris, Accra and Busan in terms of timeliness, comprehensiveness, comparability, accessibility, usability and forward-looking nature of information, taking particular note to improve quality and thereby greater use of information, including by tracking and making public resource allocation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s critical steps toward enhanced mutual accountability. By their turn, South-South cooperation partners will continue to improve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the scope, results and impacts of their cooperation actions, developed in all modalities, according to methodologies conceived by developing countries that better fit their specificities.

Supporting transition to resilience of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19. We reaffirm the priority and urgency of supporting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in their transition out of fragility and towards resilience and the centrality of peac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in the context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ose of us who have endorsed the New Deal jointly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and the g7+ group, will continue to fully implement our agreed commitments, and, to this end, we will set clear benchmarks and make concrete plans for cooperation delivery, ensure the fulfillment of both the FOCUS and TRUST principles. We collectively commit to address the challeng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results of ODA going to the poorest fragile states. In addition, we will redouble our efforts to ensure that all development cooperation serves to reinforce stability and address the drivers of fragility identified by and at the country level. We recognize that such efforts will require additional support to the areas prioritized by the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Goals as determined by context-specific assessments that include the voices of communities and civil society.

II.B. Domestic resources mobilization

20. We recognize the critical challenge of ensuring the adequate mobilization of public and private domestic resources to support development, as underlined in the Monterrey Consensus. Adequate mobilization of government revenues is required for direct financing and for leveraging private funds for investments in public services and social protection, institutional and human development, basic infrastructure, and strong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21. We undertake to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taxation systems sustained by a broader tax base and a progressive structure that is fair and just,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f tax good governance.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combating corruption, money laundering, and illicit financial flows, including by the return of stolen assets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nd other agreements to which we are party, such as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We also welcome the OECD/G20 project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Moreover, we acknowledge and further encourage efforts by countries, the UN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and multilateral and bilateral institutions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countries on tax matters, and to provide expertise,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on fiscal matters as required by developing countries.

22. The strengthening and development of an inclusive domestic financial sector, affordable acc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dividuals and households to the full range and means of financial services, the reduction of transfer costs of migrant workers' remittances, the transition of individuals and firms into the formal economy,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financing instruments, as well as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governance of extractive industries, are also key avenues to support inclusive economic growth and mobilize and channel domestic resources for development, which we undertake to actively support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riorities Innovative domestic private sector driven mechanisms and arrangements, such as special infrastructure funds, sovereign wealth and stabilization funds, and strengthening capacities of regional stock markets may also be prioritized under development cooperation by development partners.

II.C. Middle Income Countries

23. Middle Income Countries (MICs) are categorized as such upon an indicator –income per capita–, which is limited in scope and does not capture the diversity and the complexity of the development challenges that these countries face, such as poverty, inequality, vulnerabilities to economic shocks,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lack of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in dynamic economic sectors, risks of "middle-income trap", and institutional weaknesses. MICs have the largest number of people in poverty in the world.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would not be effective if support to them were to be phased out.

24. We recognize the need to devise methodologies to better account for the complex and diverse realities of MICs and to provide an improved basis for flexible, targeted and differentiated strategies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MICs, based on their specific country situations and relevant sectorial and regional capacities, including through innovative finance mechanisms and the provision of loans and technical cooperation as well as grants where necessary, and bilateral ODA for those countries that still require so, in particular Lower-MICs, and we encourage concrete proposals from all stakeholders to address this challenge.

25. We stress that the support to MICs shall not be undertaken at the expense of the support provided to other categories of countries, such as Least Developed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ther low-income countries in Africa and other regions. These countries need continued support to overcome structural deficiencies in infrastructure, human capacity, vulnerability to economic downturns and institutional capacity constraints to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Moreover, we highlight the n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to support soft transitions of countries from a lower-income to a higher-income category in order to ensure that eventual adjustments on concessional regimes and other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s do not hamper the development gains achieved by these countries.

26. As we recogniz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ICs in the global economy and in addressing global, regional and cross-border challenges, we acknowledge the important role that some MICs are playing as both providers and recipien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underline the importance of supporting their valuable role in South-South cooperation and in triangular cooperation.

II.D. South-South Cooperation, Triangular Cooperation, and Knowledge Sharing

27. Southern partners are increasingly active in exchanging developmental experiences and in cooperating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through infra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public services and social protection, resilience building, knowledge sharing, and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itiatives. We welcome the positive impact of these valuable cooperation efforts and encourage their broadening and strengthening, in partnership with all development stakeholders, while recognizing that North-South cooperation is still a main for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at South-South cooperation is not a substitute but a complement to North-South cooperation. In this context, we welcome the initiatives undertaken by Southern partner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modalities of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e ways and means to enhance its developmental impact as well as its potential synergies with the efforts of other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 and modalities.

28. Triangular cooperation is an innovative way of inclusive partnering, which puts the role and will of the recipient countries at the core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bring together the diversity and richness of the experiences, lessons learned and different assets of Northern and Southern partners, as well as multilateral, regional and bilateral develop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by maximizing, through well-supported cooperation schemes, the use of effective, locally owned solutions that are appropriate to specific country contexts. We encourage the deployment and scaling up of triangular cooperation initiatives, both at strategic and project level, which optimally draw on the respective advantages and complementary strengths of all development partners involved in accordance to the priorities and policies set out by recipient countries.

29.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untry-led knowledge sharing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especially considering its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national and local capacities. Knowledge sharing can involve North-South, South-North, South-South and triangular and regional approaches including the engagement of public and private stakeholders and the valuable support of multilateral organizations. We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networks for knowledge exchange, peer learning and coordination among all development partners. In this context, we encourage the active promotion of voluntary technology transfer, on mutually agreed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enhancement of capacity building in support of developing country efforts to address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30. Critically, as agreed in the Bali High-Level Meeting on Country-Led Knowledge Hubs in July 2012, we will foster the scaling up of knowledge sharing and mutual learning through knowledge hubs b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country institutions to systematically engage in results-oriented knowledge sharing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In the future,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promote more country led processes of knowledge sharing, for which the next High-Level Meeting on Country-Led Knowledge Hubs, to be held in Seoul (Korea) on 23-26 June 2014 will be an important opportunity.

II.E. Business as a Partner in Development

31. We recognize the important contribution of business to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ility through strong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wealth and decent jobs creation, entrepreneurship, productivity and innovation, knowledge sharing and technology transfer, and expanded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for all. In this context, we emphasize the critical importance of promoting an enabling business environment conducive to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ublic policy and regulatory frameworks. We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tor accountability.

32. We welcome the efforts made to strengthen and to put in place platforms and hubs for inclusive and structured multi-stakeholder dialogue on the broad rang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cluding trade un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alignment of business and development core objectives through the enhancement of shared value delivery along the breadth of the value chai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and corpo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We look forward to learning from the results and development impact of these efforts and to working together in their follow-up.

33. We recognize the centrality of public policies for promoting a development that responds to the specific conditions and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n this context, we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public-private finance mechanisms that appropriately share investment risks, maximiz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impact next to financial returns, and enhance entrepreneurship, financial inclusion, and value addition. We also encourage further efforts to scale up private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partnership with all stakeholders in strategic sector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riorities.

34.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play a critical role in achieving inclusive economic growth, creating decent jobs, and expanding access of the poor to finance, goods and services, in all countries. We emphasize the need to fully support these enterprises and enhance their development impact, including through adequate framework conditions, strengthened financial inclusion,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The growth of the domestic private sector is key to sustainable economic transformation and requires strong global investment.

III. Working arrangements and evolving role of the GPEDC

35. We will convene every two years a High Level Meeting of the GPEDC to take stock on progress made and identify ways and means to further advance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We welcome the proposals that have been made to host the next meeting of the HLM and ask the Steering Committee to finalize discussions on these proposals in advance of their next meeting.

36. We will continue advancing our process under the leadership of a Steering Committee that is accountable to and representative of the different constituencies and reflects the multi-stakeholder and action-oriented nature of the GPEDC. The Steering Committee will continue to meet regularly. With gratitude to the Steering Committee members stepping down, we congratulate the election of the Minister for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Netherlands and the Foreign Minister of Mexico as Co-Chairs. We also welcome the decision by African Ministers present to recommend to the June 2014 African Union Summit a successor from Africa to the position of Co-Chair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new composi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is attached.

37. We welcome with appreciation Korea's initiative on hosting an annual workshop to take stock and bring together partners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Busan commitments at country level, in order to support building up of evidence-based global high level political dialogue and commitment on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We support calls for a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build capacity for quality data collec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to monitor progress and evaluate impact.

38. We agree to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global arrangements for monitoring and reporting on the fulfillment of the Busan commitments towards the end of 2015 or early 2016 with a view to assessing ways and means for their continuous improvement and their relevance to the upcoming Post-2015 Development Agenda.

39. We thank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an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or their support to the GPEDC and invite them to continue supporting its effective functioning. We will also explore ways and means for increased cooperation with regional organizations and platform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contribution to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40. Together, we undertake to make sure that the GPEDC continues to have a constructive and action-oriented rol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now and once a post-2015 framework is agreed. With this purpose, we entrust the Steering Committee with the responsibility of submitting the message and results of this First High-Level Meeting of the GPEDC as inputs to all convergent intergovernmental and multi-stakeholder processes, including the 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the U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nd the UN deliberations to devise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ANNEX 1

Voluntary Initiatives

(Draft as at 16 April 2014)

This Annex contains a range of voluntary initiatives from a range of countries and organisations. Only those countries, organisations and other actors who are cited as supporters/participants in each of these initiatives are currently committed to them. Further expressions of support for any of these initiatives would be welcome at any time, either during, or following the end of, the GPEDC High Level Meeting in Mexico City on 15-16 March 2014. As such, this Annex remains a living document.

1. Active support to "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Belgium, France, the OECD Task Force on Tax and Development, Netherlands, the UK welcome the launch of the 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initiative, and agree to identify and provide expert tax auditors to respond to concrete demands by developing countries for building audit capacity by early 2015.

Contact point: TaxandDevelopment@oecd.org

2. Africa Action Plan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Recognising that development policy commitments can only translate into concrete change when put into concrete action, the African Continen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AUC/NEPAD Platform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has developed the Africa Action Plan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The Action Plan is based on the continent's development priorities as expressed by the African Union Agenda 2063, the NEPAD Agenda, the 2011 African Consensus and Position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the African Position for the Post 2015 Agenda, as well as Regional and Continental Consultations held in preparation for the GPEDC High Level Meeting. The Plan sets out a shared vision for using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to advance financing for Africa's development; South-South cooper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and inclusive economic transformation. The Plan includes action steps for priorities such as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South-South, Private Sector, and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the Busan commitments at the country-level, with emphasis on the Mutual Accountability Standards for Africa as the basis for accountability mechanisms with partners and cemented on domestic accountability systems and processes.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xx Contact point: florencen@nepad.org

3. Additional efforts on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Members of IATI propose that:

- Busan endorsers should accelerate efforts to implement the common standard for electronic publication of timely, comprehensive and forward-looking information on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by December 2015.
- Other GPEDC members, including South-South Cooperation providers, CSOs and private sector actors should take voluntary action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inancing for development along similar lines.
- Developing countries and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work together to promote greater use of data, by ensuring sufficient coverage and quality of data published, making progress on automatic data exchange at country level, and building capacity of data managers and users.

- There should be a light touch assessment of progress in early 2015 to support providers in identifying further actions necessary to meet their commitments by the December 2015 deadline.

Contact point: secretariat@iatistandard.org

4. Business Hubs

The UK, Sweden and the Netherlands are supporting new "Business Hubs" in developing countries, bringing together businesses, national governments, donors and civil society to agree practical steps to support private sector investment. Hubs are already being developed in Mozambique, Zambia and Colombia, and we will carry out scoping work for new hubs in Nigeria and Kenya

Contact point: Tim Stern (T-Stern@dfid.gov.uk)

5. Business Roadmap

The Partnering Initiative, supported by the UK are jointly launching a Roadmap to engage business as a core partner in development. Following a broad consult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id agencies and businesses around the world, these participants have developed the Roadmap for working with the private sector, which sets out practical actions that governments and businesses can take to build more effective partnerships and drive more investment into developing countries.

Contact point: Tim Stern (T-Stern@dfid.gov.uk)

6. Civil Society Continuing Campaign for Effective Development Programme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CPDE) launches a three-year programme "Civil Society Continuing Campaign for Effective Development", an initiative undertaken with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s of Canada, Ireland and Sweden through DFATD, IrishAid and SIDA, and aimed at delivering, by the end of 2016:

- CSOs in at least 50 countries claiming their rights in multi-stakeholder development policy arenas;
- CSOs in at least 50 countries working on their own effectiveness by promoting and practicing the Istanbul Principles;
- Global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that are clearly influenced by CSO advocacy positions on human rights, democratic ownership and inclusive partnerships; and
- Sub-regional, regional and global multi-stakeholder policy dialogue to advance international standards on enabling environment for CSOs.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csopartnership.org. Contact point: Roberto Pinauin - rpinauin@iboninternational.org

7. Collaboration to strengthen Civil Society-led South-South Cooperation through evidence and experience sharing

Participatory Research in Asia (PRIA), the South-South Cooperation Research and Policy Centre (Articulação SUL) and th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IDS) commit to continue the civil society - academic collaboration on CSO-led South-South Cooperation whose initial findings were launched at the Mexico meeting of the GPEDC, with a view to presenting concrete proposals by the time of the next GPEDC HLM. We commit to facilitating a debate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social movements,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on how best to strengthen CSO-led SSC through the sharing of experiences and proposals in the CSO-SSC Online Forum. We commit to continuing both the online and in-country dialogues through ongoing meetings supporting efforts by the Network of Southern Think-Tanks to strengthen the evidence

base on South-South Cooperation and by the Working Groups of the CPDE to strengthen awareness of the contribution of CSO practic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f the role of Southern civil society as a development actor in its own right and to advocate for an enabling environment for CSO engagement in South-South Cooperation.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cso-ssc.org; http://cso-ssc.org/forum/#/20140415/mexico-focus-session-debate-2-3852100/. Contact e.mail: info@cso-ssc.org

8. Commitment to increase aid to tax matters, and to refine ways to measure aid going to tax system development

Australia and the OECD Task Force on Tax and Development commit to increase their aid targeted at tax matters by the next GPEDC HLM, recognising that a modest increase of aid directed at tax systems development would be commensurate with the importance of the tax and development agenda. The Task Force on Tax and Development also commits to refining ways to measure and take stock of aid targeted at tax matters.

Contact point: OECD - TaxandDevelopment@oecd.org

9. Commitment to perform risk analyses against exposure to illicit financial flows

Belgium, the Netherlands, the OECD Task Force on Tax and Development and the World Bank commit to the development of a tool for proper risk assess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by the time of the next GPEDC HLM, which would help countries assess the prevalence of one or another type of economic crimes, and determine appropriate responses, targeted on priority areas. They also commit to report back on their own actions at home to stem the tide of illicit financial flows from developing countries.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xxx. Contact point: OECD - TaxandDevelopment@oecd.org, World Bank - Kuntay Celik (kcelik@worldbank.org) and Emile Willebois (evanderdoes@worldbank.org)

10. Country Dialogues for Using and Strengthening Local Systems

The Effective Institutions Platform (EIP) is launching the implementation of 'Country Dialogues for Using and Strengthening Local Systems', involving country level action, led by partner countries, towards the greater use of country systems and better integration of aid in the budget cycle. In particular, this initiative will:

- Map local systems in country and the achievement of a common understanding between local donors and countries on priority 'country systems' as well as definitions of rules for 'using country systems' and integrating aid on budget (AoB).
- Identify current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in the strengthening and use of country systems, and integration of AoB.
- Define joint Government-Donor next steps for achieving progress on strengthening and using country systems, and integrating AoB.

The first pilot of this initiative will get underway during 2014.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Effective Institutions Platform: http://www.effectiveinstitutions.org/, CABRI: http://www.cabri-sbo.org/en/about-us. Contact point: Steve Pierce, USAID - spierce@usaid.gov

11. Country owned transition toward resili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7+ reiterates the importance of the country-owned and country-led transition toward resilience, and is therefore delighted to highlight its initiative on country-led assessments of fragility. So far, six g7+ countries have undertaken the fragility assessment and other member countries are intending to do so. The fragility assessment under the New Deal is a process that

enables a constructive and forward-looking dialogue among different national stakeholders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o inform the development of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priorities which makes the base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o harmonize the development efforts around the national priorities and strengthen coordination, the recipient country and its development partners agree on a Compact as a short to medium term mechanism guiding country led-transition.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g7plus.org.

12. CSO Enabling Environment Framework and Guidelines

The multi-stakeholder Task Team on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Enabling Environment will endeavor to develop a framework and a set of guidelines on the CSO enabling environment (EE), consistent with agre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strengthen GPEDC Indicator Two, and advance democratic ownership in development processes, by the time of the next GPEDC HLM. Other GPEDC members are welcome to join this initiative.

More information can be fund at: taskteamcso.com. Contact points: Jacqueline Wood, Task Team Secretariat, woodjacqueline@hotmail.com; Brian Tomlinson, Task Team Co-chair, brian.t.tomlinson@gmail.com

13. Development Impact Bonds

The UK is announcing new support for Development Impact Bonds, which pay investors on the basis of results delivered and have the potential to drive much-needed investment into developing countries. This work will bring together investors, Governments and aid agencies to design new investments and set up a new online 'open source' knowledge platform to share the findings to inform further investment.

The UK is also committing £1.5 million to take the first steps to develop a Development Impact Bond on Sleeping Sickness in Uganda, a disease which reduces livestock productivity in Africa and costs between £1 billion and £4 billion per annum. This will be first use of this very new instrument in a developing country.

Contact point: Tim Stern (T-Stern@dfid.gov.uk)

14. Development of country roadmaps fo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UCLG) and Regions United (RU-FOGAR) commit to support the development, through national dialogue, of a set of country roadmaps for an initial 10 pilot countries by 2016, aimed at enhancing the contribution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to the implementation of Busan's commitments. By 2018,UCLG and RU-FOGAR also expect to be able to extend these to between 25 and 30 additional countries.

Contact point: Edgardo Bilsky, UCLG (e.bilsky@uclg.org), Carles Llorens, RU-FOGAR (carlesllorensvila@gmail.com

15. Eastern and Southern Africa and Indian Ocean (ESA-IO) Reference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Effectiveness Diplomacy

The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 and the Inter-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 (IRCC) is committed to the further conceptualisation and implementation of an Eastern and Southern Africa and Indian Ocean (ESA-IO) Reference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Effectiveness Diplomacy, recognising the need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capacities of regional organisations to oversee and guide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different regions. Expected outcomes are:

- A forum for facilitation and coordination is provided for the ESA-IO regional organis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respective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genda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frican continental integration agenda;
- Partnerships are promoted and coordinated in support of the collective cross regional needs of the ESA-IO region within the frameworks of North-South,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 Guidance, advisory services and capacity building are provided to the ESA-IO regional organisations and their partners on the linkages between integration commitments and implementation at national levels, including on the understanding and mobilisation of innovative financing in support of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 The ESA-IO region's capacity for political economy analysis is supported with regard to the formulation of harmonised positions on key issues relevant to the integration agendas;
- Regional diplomacy skills and collective lobbying demarches are enhanced and supported.

Contact point: Vikramdityasing Bissoonauthsing, coordinator.ircc@gmail.com

16. Endorsement of the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Engagement in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in Revenue Matters"

Australia, Belgium, France, Germany, the OECD Task Force on Tax and Development, the UK and the World Bank are adopting the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Engagement in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in Revenue Matters to ensure that, in order for tax reforms to be successful, support programmes are customised to fit the economic, structural, cultural, and political conditions in a country. They agree that they may form some partnerships with developing countries to perform self-assessments against these Principles of their support in revenue matters, to report back to the next GPEDC HLM.

Contact point: TaxandDevelopment@oecd.org

17. EU Joint Programming: Helping to Manage Diversity

The European Unio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U Joint Programming in moving to joint multi-annual strategic planning of country aid programmes, in collabo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and other interested development actors. Participants in this initiative agree to support partner country ownership and leadership in joint programming processes, in particular by:

1. Promoting the extension of joint programming processes to more partner countries and other development partners to make full use of its potential, with a view to having joint programming processes operational in 40 or more partner countries by 2017;

2. EU guidance issued by the end of 2014 and regional seminars on joint programming held in five regions by mid-2015.

Further work will also be taken forward to encourage building on and strengthening country results and monitoring frameworks and foster joi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ec.europa.eu/europeaid/how/ensure-aid-effectiveness/index_en.htm. Contact point: Michael Kirosingh, Lino Molteni, Jost Kadel; European Commission, (EUROPEAID-A2@ec.europa.eu), Alex Gerbrandij, Marie-Laure de Bergh;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VI-B2@eeas.europa.eu)

18. Further efforts on strengthening civil society enabling environment

The Task Team on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Enabling Environment commits to undertake efforts aimed at advancing international commitments to strengthen democratic ownership, to implement an 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and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Deliverables will include policy papers and guidance notes to build common understanding. This will be combined with concerted multi-stakeholder policy engagement to target

specific global policy processes such as the Global Partnership and UN post-2015 framework, and to stimulate country-level action.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taskteamcso.com. Contact point: David Wubs-Mrozewicz wubs@iss.nl

19. Further work on Managing Diversity and Reducing Fragmentation

All supporters of the Building Block "Managing Diversity and Reducing Fragmentation" will take further actions by the end of 2015, aimed at fostering global and peer learning and encouraging and supporting concrete actions by partner countries and development partners; namely:

- supporting regional workshops for peer learning and catalysing country-level action,
- gathering and communicating evidence on managing diversity and reducing fragmentation, and
- advocating for diversity management and the reduction of fragmentation in global processes (e.g. GPEDC, UNDCF, OECD/DAC, SLDM on Multilateral Reform).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fragmentation-diversity.org Contact point: Dr. Claudia Hiepe, BMZ (info@fragmentation-diversity.org)

20. Fu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Network

The Fu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Network, represented at the GPEDC HLM in Mexico by Articulação SUL, 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Network, Participatory Research in Asia (PRIA), and th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UK), commits to engaging in research-based mutual learning and knowledge dissemination, interacting with governments and non-state actors to contribute to the systematisation and dissemination of existing knowledge, and the co-construction of new knowledge on development innovations from the BRICS and other increasingly influential MICs. We will use this space to strengthen the knowledge infrastructure in our countries and sectoral and regional contexts. From now until the next GPEDC HLM, we commit to hosting dialogues and producing research which will enable this knowledge to be shared with a global public, helping to generate, map and articulate fu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t can underpin a flourishing global society.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www.ids.ac.uk/project/future-international-cooperation-policy-network Contact point: Jennifer Constantine (j.constantine@ids.ac.uk)

21. Gender Equality: delivering on the Busan Commitments

Looking forward to the Beijing +20 Review as a pivotal moment to assess global progress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UN Women, the OECD and the CSO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 to work together, and with others, to intensify our efforts to:

- Support countries including developed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systems to track and make public allocation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 Encourage donors to increase their support to partner countries, UN Women and women's organization to strengthen and monitor the effectiveness of the responsible institutions;
- Deepen inclusive and democratic multi-stakeholder dialogue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at country and regional level;
- Increase the number of countries engaged in future monitoring of the post-Busan gender equality indicator.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xx. Contact point: Zohra Khan (zohra.khan@unwomen.org)

22. Guidelines for Effective Philanthropic Engagement

The OECD Global Network of Foundations Working for Development (netFWD), in collaboration with the European Foundation Centre (EFC), Stars Foundation, UNDP and the Worldwide Initiative for Grantmakers Support (WINGS), and with support from the Rockefeller Foundation, have developed a set of voluntary and non-binding Guidelines for Effective Philanthropic Engagement which seek to enhance collaboration between the philanthropic sector and other development stakeholders, particularly governments, in order to accelerate global development efforts, across 'Dialogue, Data/Knowledge Sharing and Partnering'. A series of country pilots will start in late 2014/early 2015. The OECD netFWD will then convene a meeting with all partners involved to take stock of results and challenges, and agree on next steps.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www.starsfoundation.org.uk/resources/guidelines-effective-philanthropic-engagement. Contact point: bathylle.missika@oecd.org

23. Highlighting the problem of potentially under-aided countries

All supporters of the Building Block "Managing Diversity and Reducing Fragmentation" and the OECD DAC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issue of countries that receive insufficient assistance. In this context, participants in this initiative will, by the end of 2015, pursue individual and joint efforts to:

- improve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aid allocation,
- systematically monitor, at international level, countries that have been identified as potentially under-aided,
- deepen the knowledge about the subset of fragile states that seems under-aided
- identify concrete steps for considering the issue of under-aided countries in cross-country allocation decisions of individual providers.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fragmentation-diversity.org, www.oecd.org/dac/aid-architecture/fragmentation-orphans.htm. Contact point: Dr. Claudia Hiepe, BMZ, (info@fragmentation-diversity.org)

24. Inclusive Business Action Network

Germany commits to launching the "Inclusive Business Action Network" in the autumn of 2014. This Network will be aimed at unleashing the potential of the private sector for greater development impact, by supporting the scaling up and replication of inclusive business models, facilitating peer-to-peer learning among companies and Business-Business linkages, and promoting public-private dialogue.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s://www.giz.de/Wirtschaft/de/html/1745.html Contact point: Arne Theissen, Inclusive Business Action Network - ib-action-network@giz.de

25. Japan's ODA Charter

Japan is committed to reviewing and revising its basic ODA policy, the 'ODA charter', in particular to align it more with the GPEDC principle of inclusiveness. In so doing, it will consult with a range of stakeholders in Japan, with a view to ultimately improving Japan's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process is expected to be finalised by the end of 2014.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www.mofa.go.jp/policy/oda/index.html.

26. Korea's GPEDC Learning & Accelerating Program

In line with the initiative to host an annual workshop of the GPEDC to take stock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Busan commitments, as noted in the Communiqué of the Mexico High Level Meeting, Korea has set out a plan to provide a training program for practitioners and mid-career

officials from partner countries who are supposed to participate in the workshop. This training program will be conducted by th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is program is to fill the gaps of awareness of the GPEDC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agenda, from the technical and policy perspective. It will also provide an opportunity to share the experiences and less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Busan commitments at country level in a way to complement the discussions at the workshop. In this context, the program will start in autumn 2014, back-to-back to the GPEDC worshop hos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Korea. Korea will develop this program through close consultation with the OECD-UNDP Joint Support Team.

Contact point: Hye R. Song, hrsong01@mofa.go.kr

27. Launch of Coalition for Sustainably Resourced Public Service Delivery

Australia, the OECD Task Force on Tax and Development,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Bank will support the formation of a coali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xxx who are interested in performing an assessment of their domestic expenditure requirements and associated domestic revenue needs to help them reach post 2015 global development goals by the time of the next GPEDC HLM. These assessments will help both donors and partner countries to identify great disparities between the costs of achieving post 2015 outcomes at country level and apparent capacity to self-finance those costs – and, in turn, will help prioritize where reform in tax administration and policy can lead to an adequate and sustained level of public service delivery.

Contact point: David Dod, USAID - ddod@usaid.gov and OECD TaxandDevelopment@oecd.org

28. Launch of Learning Alliances on Public Sector Reform' initiative

The Effective Institutions Platform (EIP) is launching a 'Learning Alliances on Public Sector Reform' initiative, which will aim, by the time of the next GPEDC HLM, in particular to:

- map Peer Learning Approaches in Public Sector Reform,
- develop a Methodology Toolbox for Peer Learning in Public Sector Reform,
- deliver a workshop in autumn 2014 in order start Peer Learning activities among EIP members, on the basis of which stories of change on institutional and organisational reform will be developed.

Contact point: Jennifer.MOREAU@oecd.org

29. Launch of the 'ichallenge'

The Indicators of the Strength of Public Management Systems (ISPMS) Steering Committee and the Effective Institutions Platform (EIP) are launching the 'ichallenge', aimed at crowd sourcing ideas from the public for better indicators to measure the strength of country systems. Members of the public are invited to share their ideas for indicators by 1 July 2014.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worldbank.org/ichallenge. Contact point: Jordan Holt, World Bank - jholt@worldbank.org

30. Network of Southern Think-Tanks

Network of Southern Think-tanks (NeST), following a meeting hosted by CAITEC and UNDP China, shall initiate work to further contribute on South-South Cooperation (SSC). The network's objectives would include:

- reaching a common conception of SSC;
- developing a conceptual framework of what SSC can contribute and formulating an associated roadmap;

- developing indicators for impact assessment (recognizing national specificities); and
- strengthening data collection.

Contact point: Sachin Chaturvedi, chaturvedi_s@hotmail.com

31. Open Government announcement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reaffirms that Open Government - in the form of enhanced transparency, citizen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 is essential to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All Busan endorsers eligible for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but not currently participating should join in 2014.

Citizens should have access to information, capacity, and channels to participate in government decision-making processes to ensure the effective allocation of resources for development efforts. GPEDC members who are already part of OGP should ensure they have an ambitious citizen engagement commitment in their next National Action Plan and present it at a high-level meeting in September 2014 on the margins of UNGA.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opengovpartnership.org. Contact point: joe.powell@opengovpartnership.org

32. Partnership for Climate Finance and Development

Participants committed to continue the Partnership for Climate Finance and Development, a voluntary multi-stakeholder initiative to ensure the effective deployment of climate finance through coherence and collaboration among climate change, fin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communities at country, regional and global levels. The Partnership supports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and planning as an integral part of developing countries' overall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seeks to ensure that – where appropriate – these measures are financed, delivered and monitored through developing country systems in a transparent manner. As immediate next steps for 2014/15, the Partnership will support lesson learning and dialogue on the management of climate finance for development within and across regions, including through strengthened platforms for dialogue in Africa and Asia-Pacific and Latin America/Caribbea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http://climatefinance-developmenteffectiveness.org/busan-partnership-for-action.html; http://www.oecd.org/development/environment-development/climate-partnership

33. Statement of Resolve by the National and Regional Arab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the Islamic Development Bank and the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National and Regional Arab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the Islamic Development Bank and the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reiterate their commitment to a continuous and scaled up cooperation with their Partner countries reflecting the tenets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country ownership;
- reaffirm their support to the GPEDC and commit to contributing to its governance, as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as active development partners in over one hundred developing countries for over forty years;
- commit to the success of the GPEDC HLM and to the deepening of the GPEDC processes and commit to a follow-up meeting on the HLM by mid-June 2014 in Jeddah (Saudi Arabia) and to a round table early in 2016, on ways and means of enhancing the frameworks of South-South cooperation.

34. The Big Development DataShift

CIVICUS, the global civil society alliance, launches The Big Development DataShift, an ambitious, multi-stakeholder initiative to leverage the potential of the data revolution in development by building the capacity of civil society around the world to collect, curate and use citizen-generated data. The DataShift will increase coverage of data initiatives in the global south, promote comparability of data across countries, and create new tools for monitoring the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thedatashift.org. Contact point: danny.sriskandarajah@civicus.org

35. The Big Idea: Youth-led, data-driven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Restless Development is piloting the Big Idea, a youth-led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initiative. Open data in the hands of young people can effectively drive national- and local-level accountability and development progress. The Big Idea project is a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bringing together data experts, civil society, youth organisations, academia,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The project will equip young people with knowledge, skills and platforms to effectively interpret and use data in order to mobilise citizens to take action, and hold their governments accountable. The project will be implemented in Nepal, Tanzania and Ghana. We will capture and analyse information gathered during the implementation phase to form recommendations for project scale-up and the wider sector.

We are calling on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the GPEDC to build on the learnings of our pilot programme to develop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which young people can take an active and leading role. Young people should be included as equal partners at all levels, from the grassroots to high-level spaces like the GPEDC SC. Restless Development and other youth organisations are committed to assist other stakeholders in putting this into practice.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restlessdevelopment.org/big-idea. Contact point: markn@restlessdevelopment.org.

36.The Partnership in Mozambique – An Agenda for Action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the country-level delivery of the Busan principles Mozambique, Ireland, Finland and Switzerland, together with the Mozambican Debt Group, have agreed to develop a Joint Agenda for Action designed to accelerate delivery on the Busan commitments in Mozambique. This Joint Agenda for Action will lay out short and medium term measures to be implemented over the next two years, aimed at further strengthening and adapting Mozambique's development cooperation architecture and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Mozambique's Busan Action Plan, by:

- Enhancing national Ownership and Leadership of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hips
- Focussing Results and Policy Dialogue on national development priorities
- Incentivising, and better specify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 Building a more Inclusive Partnership by opening up existing mechanisms to new players.

Contact points: hibrahimo@mpd.gov.mz; earnan.ocleirigh@dfa.ie; Ulla.Jarvela-Seppinen@formin.fi; suzanne.mueller@eda.admin.ch; humbertozaqueu@gmail.com

37. Welcome the development of the "Tax Administration Diagnostic Assessment Tool" (TADAT)

The IMF, TADAT Steering Committee and Belgium welcom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by the time of the next GPEDC HLM of the Tax Administration Diagnostic Assessment Tool which

will provide a framework for assess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a country's tax administration.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tadat.org.

39. Working Group on Good Practice Principles for Value Chain Development in FCS

IFC is leading a working group, including the Clingendael Institute, Spark, Shell, and relevant IFC/WBG teams to develop a conflict-relevant tool for accelerating value chain development and integrating local SMEs. The effort will entail developing, piloting, evaluating, refining and dissemination of practical tools for practitioners, focused on agribusiness and extractives investment in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ituations. This will start with a set of good practice principles that deeply incorporate conflict-sensitivity, on which we are seeking comment at valuechainFCS@ifc.org. Specific outcomes, expected by June 2015 will include:

- A set of tools to identify risks, gaps and constraints in the ecosystem / enabling environment, including policy, regulatory, finance,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 A methodology for engaging the anchor investor, local community and potential suppliers to define and develop necessary local capacity;
- Mechanisms for building skills of youth in FCS to maximize the employment impact;
- A cross-sectoral dialogue mechanism to structure collaboration among value chain partners;
- A methodology for defining intermediate and long term results, and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ools and approaches; and

Dissemination of the approach to the industry through relevant associations.

Contact points: Magdi M. Amin, IFC (Mamin2@ifc.org); Yannick du Pont (y.du.pont@spark-online.org). To partner or contribute your ideas, please email valuechainFCS@ifc.org

ANNEX 2

New Composi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as agreed at the 5th meeting of the Global Partnership Steering Committee Abuja, 13-14 February 2014)

Current composi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Global Partnership (18 members):

Co-Chairs of the Global Partnership and of the Steering Committee	
1	Recipient of development co-operation
1	Provider and recipient of development co-operation
1	Provider of development co-operation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5	Representatives of recipien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t least one of which is a representative of the g7+ group of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1	Representative of providers-recipien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3	Representatives of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1	Representative of private sector stakeholders
1	Representative of parliamentarians
1	Representative of civil society stakeholders
1	Representative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1	Representative of the UNDP/UNDG
1	Representative of the OECD/DAC

Breakdown of the six additional seats agreed in Abuja

Additional seats	
1	Additional representative from Africa
1	Representative of providers-recipien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1	Representative of Arab providers
1	Representative of non-traditional civil society stakeholders / trade unions
1	Representative of foundations
1	Representative of local governments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4월 설립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전담 기관입니다.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제도구축,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학교·병원·직업훈련원 등 710여건의 프로젝트 사업, 1만여명의 해외 봉사단 파견, 40,000여명의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620여건의 NGO와의 협력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수행 시 환경 및 양성평등, 인권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과 인간다운 삶이 공존하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원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OICA는 지구촌 행복시대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개도국의 발전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KOICA ODA 연구팀(ODA Research Team)

KOICA ODA 연구팀은 한국 ODA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ECD/DAC(개발원조 위원회)에 가입하고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ODA 연구팀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ODA 흐름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강점을 잘 조화시킨 바람직한 개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ODA 연구팀은 그동안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ODA를 선진화 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KOICA 연구보고서

- KOICA 주요 다자협력 기구 적정성 평가 및 다자협력 운영체계 조사연구
- 개발협력사업에서의 적정기술 활성화 방안
- DEEP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 다자기구 협력사업 개선방안 연구 : 멀티바이와 양자사업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Post-2015 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분야 ODA 지원방안
- 기초선조사(Baseline Survey) 수행체계와 활성화 방안 연구
- 경제발전이론의 변천과 원조 전략 : 경제적 관점에서 KOICA의 향후 연구 제안
- 개도국 청년고용정책과 ODA : '노동시장 연계형 '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형성 논의를 중심으로
- 초·중등 교육분야 ODA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 KOICA 성평등 개발협력사업 방안
- 타 해외 원조기관 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체계연구
- 농촌종합개발 프로그램 모델 연구
- 개발도상국 선거제도 지원 ODA연구
-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C4D)' KOICA 사업 적용을 위한 타 기관 사례 연구
- 타 해외원조기관 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체계 사례연구 : DFID
-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례 연구
- 가족계획 및 생식보건 ODA 프로그램 현황 연구
- 교육분야 ODA 성과측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PDM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 한국 보건의료 무상 ODA의 협업방안에 관한 연구
-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접근법 활용방안
- 한국적 개발 모델의 교훈 : 효과적 개발 협력과 제도-정책 시너지
-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 CSO 역량강화활동 평가 가이드라인
-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 CSO 국제개발 질적 평가 매뉴얼
- 보건의료체계강화 세부전략 연구 : 최종보고서
- 보건의료체계강화 세부전략 연구 : 세부전략 매뉴얼
- KOICA-경상북도 새마을리더봉사단 평가방안 연구
- 국제개발협력지 2014년 1호

개발과 이슈

[8호]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012년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 결과와 함의

[9호] 국제사회의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와 우리나라 ODA에 주는 시사점

[10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11호] 개도국 지역공동체개발 논의 동향과 전망 : 새마을운동 ODA 정책과 사업 전략 형성을 위한 시사점

[12호] 모두를 위한 품위 있는 삶 :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사무총장 보고서

[13호] 개도국 지역공동체개발 사업 사례 연구 : 새마을 운동 ODA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Working Paper

[2014-1] Forging 'Soft' Accountability in Unlikely Settings : The Prospects of Mutual Accountability in South-South Cooperation

연구자료 ODA연구 2014-05-089

21세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과 동향
: 제1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과 2014년 멕시코 고위급 회의를 중심으로

발 행 2014년 5월
발 행 인 김 영 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동 화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물 등록번호 11-B260003-000366-01
ISBN 978-89-6469-237-093320

연구자료
ODA연구 2014-05-089

ISBN 978-89-6469-237-093320



KOICA 한국국제협력단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